

#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2010. 8



#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2010. 8

---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교덕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수영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순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조정아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분야별 동향 분석 .....	3
1. 정치분야 동향 .....	3
2. 외교분야 동향 .....	7
3. 대남분야 동향 .....	11
4. 경제분야 동향 .....	15
5. 사회·문화분야 동향 .....	26
6. 군사분야 동향 .....	33
III. 분야별 정세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	38
1. 분야별 정세 전망 .....	38
2. 정책적 시사점 .....	44
부록. 북한방송 주요 논조(분야별 구분표) .....	47



## I. 문제제기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할 것을 제기한 이후 경제분야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경제문제 해결 노력에 중점을 두어 왔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활동 역시 군사분야 우선에서 경제분야 우선으로 초점을 다소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음.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6.7)에서 단행된 내각개편에서도 인민생활 향상 관련 경제분야에 집중
  
- 북한의 정책적 강조점이 변화된 것은 후계체제 구축 노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민생활 향상 등과 같은 주민복지 조치를 필요로 함.
  
- 이외에도 북한 당국은 후계체제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당 및 국방위원회 등 주요 조직의 인사 및 재정비 조치를 단행
  - 장성택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으로 김정은 후계구도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44년 만의 당대표자 회의 개최와 당 최고지도기관의 선거 결정은 중앙당의 조직 재정비로 후계체제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
  
-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군사위협을 강화하는 등 대남 강경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체제방어 노력에 집중하고 있기도 함.

-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대내 체제동원 태세를 견지하게 함으로써 내부 체제단속을 기도
  - 후계체제 구축 과도기에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여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상반기(1~6월) 북한이 보여 온 이러한 다양한 대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Ⅱ. 분야별 동향 분석

### 1. 정치분야 동향

#### 가. 주민생활 향상관련 선전선동 강화

-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분야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최역점 들 것”을 강조한 이래 각종 행사와 선전매체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
  - 로동신문 사설(1.12, 1.20, 2.16, 3.12, 3.15, 4.9, 5.23, 6.23, 6.28) 등을 통해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를 김일성조선의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번영의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역설
  - 새해 공동사설 과업 관철 군중대회,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김정일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김일성 생일 98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등에서도 “올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총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갈 것”을 강조
  
- 상반기 김정일의 경제분야 현지도는 33회로서 여타 분야의 현지도에 비해 가장 많은 횟수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동기의 27회 보다 다소 증가된 양상을 보였음.
  - 김정일의 경제분야 현지도 증가는 인민생활 향상 관철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나. 선군정치 견지 속 '선군' 강조 완화

- 김정일은 1997년 이후의 최대 규모의 군 승진인사(4.15), 군부대 방문(21회) 등 여전히 군대의 절대적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선전당국은 선군정치의 정당화에 주력
  - “선군정치는 조국의 강대성의 근본원천”이라며 위대성과 정당성 주장(1.30, 중앙통신)
  -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담보하는 선군정치” 제하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 정당성” 주장(4.8, 로동신문)
- 그러나 작년에 비해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0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용된 선군정치 어휘는 작년에 비해 다소 퇴조된 양상을 보였음.

#### 다. 조직정비 및 주요 인사 단행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4.9)에서 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통한 조직정비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6.7)에서 총리 등 내각을 개편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에 변영립 보선, 최고 검찰소 소장에 장병규 임명
  -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승진 임명

### <표 1> 내각개편 내용

직책	신임	해임	비고
국방위부위원장	장성택(65)		2007년부터 당 행정부장 역임
내각총리	최영림(81)	김영일	
내각부총리	강능수(81), 김락희(78), 리태남(73), 전하철(83), 조병주(69), 한광복(65)	곽범기, 오수영, 박명선	조병주(기계공업상 겸임) 한광복(전자공업상 겸임)
경공업상	안정수	리주오	
식료일용공업상	조영철	정연과	
체육상	박명철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체육지도위원회 → ‘체육성’으로 명칭변경

-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용철(4.26, 중앙방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4.28, 중앙통신)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김일철 국방위원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5.14, 중앙통신)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6.2, 평양방송)

#### 라. 당 기능 정상화 시도

-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약화된 당의 기능을 복원하여 정상화하려는 움직임 대두
  - “당 중앙위원회를 사수하자”라는 구호가 중앙보고대회(4.14, 5.1)에 재등장하고,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로동신문 사설 게재(6.28, 6.30) 빈도 증가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6.7)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의에 따라 총리를 소환·선거”하였다고 밝혀 당중앙위원회 정치

국의 역할을 부각

-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2010년 9월 상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발표 역시 당 중앙위 정치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임.
- 오는 9월 개최될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의 최고 지도기관의 조직과 기능 재활성화 예고

#### 마. 김정은 후계체제 기반 구축 구체화

- 김정일의 건강 이상 이후 3남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되는 양상을 노정
  -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 확대와 함께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작업이 본격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김정은이 김정일의 현지시찰 시 수시로 동행하며 정책의 관여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6.24,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 9월 상순에 소집될 당 대표자회를 통해 유명무실했던 당 조직을 재정비하여 약화된 당 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김정은 권력세습을 위한 당적 기반 마련예상

## 2. 외교분야 동향

### 가. 김정일의 방중과 대중관계 강화

- 약 4년여만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5.3~7)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최고위층과 회담하고 대련·천진·심양의 항만시설과 공장, 경제기술개발구 등을 시찰
  -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김기남,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당 중앙위원회 부장 장성택·김영일·김양건,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주규창,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리명수, 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종수, 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 수행
  
- 북·중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합의
  - 고위층 교류를 통한 밀접한 관계 유지
  - 전략적 소통의 강화
  - 경제무역 협력 심화
  - 인문교류 확대
  -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의 협력 강화·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
  
- 후계체제하의 북·중 혈맹관계 지속, 천안함 피격사건 대응관련 공조,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지원 확보 등이 이번 중국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추정되나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전략적 소통 강화 합의 내용이 빠져있는 북한 측 보도(중국보다 하루 늦게 보도)는 양국간 미묘한 마찰과 갈등을 시사
  - 중국의 대규모 경제지원 확보에서도 실패

- 북·중관계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여타 교류활동은 예년처럼 활발히 진행
  -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외교부 직원 사이의 친선모임(1.18, 2.5, 북경)
  -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외연락부 대표단의 방북 및 김정일 예방(2.8)
  -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방중(2.9~13)
  - 북한 로동당 국제부 대표단 단장 김영일 부장, 방중하여 후진타오 주석 및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예방(2.23)
  - 북·중, 「압록강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2.25)
  - 김정일, 주북 중국 신임대사 류홍차이(劉洪才) 접견(3.29)
  - 북한군 대외사업 대표단(단장: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장 안영기 소장), 중국 방문(3.30~4.3)

#### 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 선전 지속

- 연초 북한 외무성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담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1.11)한 이후 지속적으로 미·북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
  -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를 포함한 조·미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관건”이라면서 “미국은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1.21, 중앙통신; 2.2, 4.28, 로동신문; 2.3, 2.7, 5.13, 중앙통신)
  - “평화협정 체결로 비핵화를 포함한 조·미관계 개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평화와 안전의 담보를 마련하려는 것이 북의 정책입장”이라고 강변(1.25, 1.27, 1.30, 2.2, 조선신보)

-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할 경우에는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
  -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모든 핵 무력 철수와 대조선적대시 정책철회 요구(6.28, 중앙통신; 로동신문)
  - 북한 외무성, “필요한만큼 핵무기 생산”할 것이지만 “국제적 핵군축 노력에도 참가할 것”이며 “비핵화 실현에 필요한 신뢰조성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비망록> 발표(4.21, 중앙통신)

#### 다. 대일 과거청산 요구와 비난 지속

-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동시해결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로 북·일 양국간 비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인정과 배상을 요구
  -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인정과 배상은 “역사적 책임, 법적·도덕적 의무”(1.8, 평양방송)
  - 과거 일제의 전쟁범죄는 “반드시 결산하고 넘어가야할 과거문제인 동시에 예민한 정치적 현행문제”(2.12, 로동신문)
  - 일본 총리의 북·일 관계정상화 추진 발언은 “정권안정과 유지를 위한 민심낙기”이며 북·일관계는 “오직 과거청산에 의한 신뢰도모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6.23, 로동신문)
- 이외에 일본의 각종 정책추진에 대해 대북 적대시와 군사대국화를 기도한다고 비난
  -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공동훈련, C-130 수송기 배비 등 일본의 군사책동이 본토방어형에서 해외공격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면

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비난(3.8, 중앙통신)

- 일본의 대북 <화물검사 특별조치법> 채택에 대해 “미국 상전의 장단에 춤을 추며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6.8, 로동신문)
-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국제평화협력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자신을 겨냥한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책동”이라며 “선제공격의 방법으로 조선재침을 실현하고 아시아 정복의 길로 뛰어든다면 차례질 것은 죽음과 파멸 뿐”이라고 위협(6.16, 중앙통신; 로동신문)

#### 라. 반(反)제국주의투쟁 선동 강화

-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책동에 대처하여 개도국들의 반제투쟁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력갱생원칙과 남남협조 강화를 주장
  - 제국주의자들의 “반제자주역량 말살, 일극세계건설 전략목표에 단호 대처”(1.21, 로동신문)
  - “진보적 인민들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내정 간섭과 압력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2.5, 중앙통신)
  -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예속”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과 지역적 협조와 단결 강화, 정치적 단결 등”이 필요(6.4, 중앙통신; 로동신문)

### 3. 대남분야 동향

#### 가. 남북관계 개선 억지 요구 지속

- 연초에는 남한 이외로 부터 북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등 유화적인 의사를 표시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관계로 전환, 북남공동선언들 성실 이행” 강조와 함께 우리 당국이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1.8, 로동신문)
  
-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금강산 및 개성지구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1.26~27, 금강산)을 제의(1.14, 중앙통신)하고 남북 해외공단 합동시찰 평가회의(1.19~21, 개성공업지구),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2.1, 개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3.2, 개성)에 응하는 등 남북경협에 적극적
  -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북남협력사업에 조건없이 나설 것” 촉구(2.3, 평양방송)
  - 특히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 재개사업은 단순히 관광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문제”라며 우리 측에 관광재개 위한 성의있는 노력 촉구(2.24, 평양방송)
  
-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남한의 대북정책은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될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는 비난(5.14, 평양방송) 강화

## 나. 남북관계 단절 조치 단행

- 우리측이 원칙을 고수하고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우리 당국과 ‘모든 관계 단절’하는 등 8개항의 조치를 발표(5.25, 중앙통신) 하고 실행
  - ① 남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② 현 정부 임기기간에는 일체 당국 사이의 대화와 접촉 중단 ③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들의 사업 완전 중지 ④ 남북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약사무소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 즉시 전원 추방 ⑥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 개시 ⑦ 남 선박, 항공기들의 북측 영해, 영공통과 전면 금지 ⑧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
  -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장, 남측 함정들의 북 영해 침범시 “해상수역을 고수하기 위해 실제적인 군사적 조치 취할 것”이라는 대남 통지문 발송(5.25, 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대북경협 4원칙’ 등을 계속 비난하면서 “북남사이의 협력, 교류사업이 완전 격폐”(6.15, 평양방송)되었는바, 현 시기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은 “남북공동선언들의 존중과 실천”이라고 주장(6.29, 중앙통신; 로동신문)

## 다.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연북투쟁 고취

- ‘우리민족끼리’와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에 실망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제 선거 정국을 맞아 적극적 공세 전개

-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들의 “현 정권 심판” 연대연합과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통한 투쟁 및 선거 필승 선동(2.22, 3.25, 5.15, 5.23, 로동신문)
-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자주, 민주, 통일세력의 승리이며 민심의 단호한 심판”이라고 강조(6.4, 평양방송)하면서 집권세력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으므로 “권력의 자리에서 지체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6.7, 중앙방송)
- 이와 함께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의 철폐”(1.1, 신년 공동사설)를 주장하면서 보안법 폐지 등 기존의 정치공세를 통한 통일전선전술 지속
  -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역설(1.1, 신년 공동사설)
  -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다그치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자면 대결시대의 잔재인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과 폭압기구들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1.15, 2.2, 로동신문)
  - 연방제방안이 “유일무이한 방안”이라며 제도통일의 ‘부적격’ 지적과 연방제통일 실현 선동(2.24, 로동신문)

#### 라. 내부 체제단속을 위한 대남 군사위협 강화

- 우리측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행동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하여 “남 당국의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이라며 “청와대를 포함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1.15, 중앙통신;

평양방송)

- 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의 ‘연합성명’(2.8)을 통해 남 당국의 “반북 체제전복 시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전면적인 강력조치”할 것을 천명(2.8, 중앙통신; 중앙방송)
  
-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심리전 재개가 결정되자 체제유지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된다고 판단, 이의 실행을 막기 위해 강력히 저항
  -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남측이 “반북 심리모략행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측의 납득할만한 대책 없을 시 결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대남 ‘통지문’ 발송(4.10, 중앙통신)
  -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장,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관련 “확성기를 조준 격파사격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남측 인원, 차량들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 취할 것”을 위협하는 통지문 발송(5.26, 중앙통신; 평양방송)
  - 우리측의 심리전용 확성기 설치 등과 관련, ‘총참모부 중대포고’를 통해 “전 전선에서 반북심리전 수단 등을 흔적도 없이 깨끗이 청산해 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6.12, 중앙통신; 평양방송; 조선신보)
  - 대북 심리전 재개준비 관련 ‘직접적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단호한 타격은 비례적 원칙에 따른 1:1의 대응이 아니며,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고 협박(6.23, 중앙방송)

## 4. 경제분야 동향

### 가. 인민생활 향상 강조

- 인민생활 향상이 화폐개혁 이후 더욱 가중된 경제난과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제기되었음.
  -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공업과 농업을 최우선적으로 언급·강조
  - 경공업과 농업을 강조하는 사설 게재: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며 신심 드높이 앞으로’(1.9, 로동신문)
  - 농업성 장학수 국장은 올해 농사의 역점사업은 종자혁명이라 언급(1.18, 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2010.4.9, 만수대의사당)에서 인민생활을 다시 강조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원칙에서 2010년 예산 편성: 농업(2.5% 포인트 증가)·경공업부문(4.5% 포인트 증가)의 예산증가율 확대
  - 인민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나 농업·경공업부문에서의 성과보다는 당면한 식량조달 문제 및 물가 폭등에 대처해 주민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
  
- 2010년 상반기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경제실적은 대부분 선행부문에 치중되어 있음.
  - 선행부문의 2010년 예산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4% 포인트 감소
  - 금속공업: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원호식 연속조괴공정’ 현대화 완공(3.3, 중앙방송), 김책제철연합기업소 1/4분기 계획 초과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강철생산기지들의 1/4분기 철

강재 증산 선전(4/13, 중앙통신)

- 채굴공업: 3월 5일 청년광산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공·조업식(5.30),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6월 21일 현재 상반기도 생산 계획 102% 완수 등 전국탄전들의 석탄증산 투쟁 및 생산계획 초과 달성 보도(6.30, 중앙통신)
- 화학공업: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 공정 조업식(4.29)
- 전력공업: 자강도 희천 수력발전소(2012년 완공목표, 발전용량 30만 kw) 최근 댐 기초 공사를 마무리(6.14, 연합뉴스)

○ 북한은 노동정량법, 석탄법 등 법률을 제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7개 법률(노동정량법, 농장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을 제정했다고 보도(1.15, 중앙통신)
- 석탄법(6장 76조)을 제정하여 외자유치를 시사: ‘민주조선’이 5회(1월 20일~2월 12일)에 걸쳐 ‘석탄법’ 법규 해설

#### 나. 반(反)시장조치의 후퇴

○ 지난 연말 실시된 화폐개혁 이후 북한 당국의 반시장조치는 1월 중순까지 지속되었음.

- 화폐개혁 이후 지방의 대규모 도매시장(종합시장) 폐쇄 시도: “북한 당국이 작년 12월 30일 내각 조치로, 올해 3월 말부터 청진 수남 시장의 운영 관리를 중지해 사실상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1.6, 좋은벗들)

- 각종 재화의 공급과 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시장 상품의 주요 공급원인 중소 무역회사들을 통폐합 추진(1.20, 좋은벗들; NK지식인연대)
  - 북중 무역업자들은 화폐개혁 이후 북한당국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북한 내 외화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발언(1.14, 요미우리 신문)
- 그러나 1월 중순 이후에는 주요 도시의 시장거래를 다시 전면 허용하는 등 반시장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장은 상당히 이전 분위기를 회복(2.4, 연합뉴스)
  - 북한당국은 시장을 무조건 종전처럼 열고 시장에서의 식량거래를 절대 단속하지 말도록 공안기관에 지시했다고 보도(2.18, 좋은벗들)
  - 화폐개혁의 후속조치로 금지했던 외화 교환을 최근 다시 허용했다고 보도(3.15, NHK)

#### 다. 식량확보에 주력

- 김정일은 ‘경제일꾼 협의회’(1월 말 평양)에서 상반기 내 국가식량공급 정상화를 지시함.
-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가 북한 내 모든 무역 기관과 외화벌이 기관에 식량수입 확대 ‘명령’을 하달(2.23,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땀기밭을 세대별로 조정해 6~7월에 수확할 수 있는 보리, 밀, 감자를 무조건 재배케 함으로써 춘궁기를 넘기라는 지시를 군 인민위원회에 내렸다”고 밝힘(3.22, 자유북한방송; NHK).

- 북한 당국이 최근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수입 책임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외화별이 회사(무역회사)는 군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무조건 문닫게 하라는 지시(3.24, 자유북한방송; 연합뉴스; 좋은벗들)
- 화폐개혁 이후 물가폭등 등으로 어려워진 식량 상황에 대처하고자 곡물 등의 대중 수입을 확대함.
  - 2010년 1~5월 대중 주요 곡물 수입은 총 110,300톤(쌀 24,400톤, 옥수수 31,400톤, 콩 20,500톤, 밀가루 34,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 비료 수입도 81,943톤으로 지난 해 동기 38,400톤 대비 115.6% 급증

#### 라. 물가 및 환율 폭등

-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물가 및 환율은 폭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환율 및 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놓였으나 6월 말 현재 안정세 유지
  - 2월 말, 3월 초 환율과 물가의 이례적인 폭등은 소비교란보다는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추락한 화폐교란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 이에 따라 북한 ‘원’의 가치는 계속 하락, 현재는 교환 기능만 남아 있고 저축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소멸(6.22, 자유아시아방송)
- \* 자성남 주(駐) 영국 북한 대사 및 이기성 교수는 화폐개혁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부분적 불안정 상황이 있었으나 지금은 수습됐다고 언급(3.18, 연합뉴스; 4.19, 교도통신)

- 2010년 6월까지 북한의 ‘원’-달러 환율의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
  - 화폐개혁 이후 무역 기관들의 무리한 연말 수입 증대와 북한의 외화사용 금지 조치(외화사용 금지 포고문은 2009년 12월 28일 게시)로 환율 급등
  - 이후 환율은 2월 말, 3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연초 달러 당 120원 수준에서 2,300원 수준으로 약 20배 폭등
  - 3월 중순에 1,100원 수준으로 하락한 후 4월 초까지 600~700원 수준으로 추가 하락
  - 4월 초, 중순 이후에는 다시 1,000원대 수준으로 상승한 후 6월말까지 900~1,000원대에서 안정세 유지
  
- 같은 기간 물가수준(kg당 쌀 가격)은 환율의 변동폭을 반영하여 등락을 거듭한 후 6월 말 현재 500원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거래시 가격 상한제를 1월 29일부터 도입(4.19, 교도통신)했으나, 쌀 가격은 연초 120원에서 3월 초 1,300원으로 연초 대비 약 11배 폭등
  - 3월 중순에 700원 수준으로 하락한 후 4월 초까지 200원 수준으로 추가 하락: “(북한 당국이) 주민강연회를 열어 4월부터 국가 식량 공급의 정상화를 홍보하고, 외화벌이 기관에 대한 불법 비축식량 단속 강화” 등이 하락의 원인이라 지적(3.23, NK지식인연대; 자유북한방송)
  - 4월 초, 중순 이후에는 다시 450원 수준으로 상승한 후 400~500원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6월 말 현재 550원 수준 유지

<표 2> 시장환율과 쌀 가격 추이 (평양, 2010년 1월~6월)

기간	시장환율(원/달러)	쌀가격(원/kg)
1.5~1.6	120	120
1.8~1.14	215	210
2.2~2.8	395	370
2.17~2.23	500	470
2.25~3.3	2,300	950
3.2~3.8	2,300	1,300
3.9~3.23	1,100	700
3.26~4.1	600	200
4.1~4.7	700	450
4.8~4.26	1,000	500
4.26~5.6	900	400
5.7~5.25	1,000	450
6.26~7.5	900	550

자료: 데일리NK(www.dailynk.com) 北장마당 동향(1월~6월)참조

#### 마. 라선시 개방 및 국가개발계획 추진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경제자유무역지대인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1.4)
  - 박철수 대풍그룹 총재는 김정일 위원장이 특별시 승격시 김수열 라선시장에게 라선을 국가 개발 중심지로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3.25, 환구시보; 연합뉴스)
  - 또한 일본 대북 인권단체 RENK는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3월 라선을 방문, “6개월 후에 이곳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나선 완전개방설 제기(3.8, 중앙통신; 산케이신문)

- 국방위원회 결정(1.20)으로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조정위원회’ 설립
  -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개발은행은 이사회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대표 전일출을 이사장, 재중동포 박철수를 부이사장에 선거, 이사회를 출범(3.10, 중앙통신)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로 활동
  
- 북한은 ‘북한 경제인프라구축 10개년계획’을 추진, 올해 평양을 포함한 8개 도시 인프라 개발계획에 착수한다고 발표
  - 박철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총재는 국가예산과는 별도로 ‘북한 경제인프라구축 10년계획’을 발표(3.2, 연합뉴스; 닷케이신문)
  - 또한 박철수 총재는 평양과 남포, 라선, 원산 등 8개 도시에 5년간 1,2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는 인프라 개발계획을 올해 착수 발표(4.16, 교도통신; 연합뉴스)
  
- 북한은 전방위적인 해외 투자자 모집을 지시하는 등 ‘외자 유치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국방위원회 산하에 외자 유치 전담 기구인 ‘룡악산 지도총국’ 신설, 지도총국 산하 집행기관인 ‘령봉경제연합회’는 베이징 등에서 외자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3.15, 연합뉴스)
  -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권을 준 것으로 알려진 ‘룡악산지도총국’은 5월에 투자 유치 설명회를 중국에서 열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4.19, 연합뉴스)

## 바. 북·중 무역 확대 및 경험 강화

- 북·중 교역 규모는 2010년 1~5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8.1% 증가해 북한의 대중 의존이 심화되었음.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0년 1~5월 북·중 무역 규모는 9억 8,363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8억 3,307만 달러 대비 18.1% 증가
  - 이 기간 수입은 7억 2,719만 달러로 29% 증가한 반면 수출은 2억 5,644만 달러로 4.9% 감소
  
- 북한과 중국은 라선지역 및 인접 중국지역을 연계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는 “조만간 훈춘-나진항 통로가 열리고 중국의 나진항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1.15, 연합뉴스)
  -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는 북한과 투먼-청진항 구간 철도 보수에 합의, 4월부터 보수 작업 개시 예정(1.17, 연합뉴스)
  - 지린(吉林)성은 라진항 10년간 사용권 획득(3.8, 연합뉴스): 리룽시(李龍熙)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원회 부서기는 3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
  -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시가 북한 청진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하는 등 동해 진출을 위한 국제물류통로 개척 추진(4.9, 長春日報; 연합뉴스)
  - 라진항의 배호철 항장이 지난 19일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를 방문, 강호권 훈춘시장과 나진항 개발 관련 경험 논의(5.21, 연합뉴스)

- 동시에 북한과 중국은 신압록강 대교 건설을 비롯한 신의주 및 인근 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북한은 위화도와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2개 기업에 각각 50년 임대 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2.23, 연합뉴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지난해 방북 당시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신압록강 대교는 10월 착공될 전망(2.25, 연합뉴스), 전인대 대표인 자오렌성(趙連生) 단둥시장도 10월 착공 언급(3.7, 차이나 데일리)
  - 북한과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는 합작으로 압록강 상류인 임토와 문악 등 2개의 수력발전소 건설 착공식(3.31, 집안시) 진행(4.1, 교도통신)
  
- 북한과 중국은 북한 관광을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통행 편의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 엔벤 조선족자치주는 훈춘에서 북한 나진과 평양, 관문점에 이르는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계획 발표(2.12, 연합뉴스)
  - 저장(浙江)성 중국여행사는 4월 20일 첫 운행에 나서는 북한 관광 전용열차 예약 완료를 소개(3.21, 연합뉴스)
  - 투먼(圖們)시 외사관광국 리창싌(李昌勛) 국장은 북한 당국과 합의 아래 2개 관광 노선에서 사업을 실시 중이며, 여기에 투먼-남양 간 도보여행이 포함(4.9, 東亞經貿新聞; 연합뉴스)
  - 중국의 북한 단체관광이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중국 측 참관단과 관광단이 12~13일 항공편과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4.16, 중앙방송; 중앙통신)
  - 중국 고려여행사는 “1월부터 함흥도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히면서 8월 7일 첫 함흥 관광에 나설 관광객을 모집

#### (4.3, 연합뉴스)

- 북한 조선관광사 엔지대표처는 4월 13일부터 엔지에서 비자 발급 개시(4.26, 길림일보)
-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이 5월 1일부터 북한 변경관광을 위한 통행증 발급 시작(5.9, 길림신문; 연합뉴스)
- 이밖에도 박람회 개최가 논의되고 자원개발 협력 등도 추진되었음.
  - 제13회 평양 춘계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기간 중 단둥시 경제무역대표단은 오수용 북한 내각 부총리 등과 북한과 단둥시 간 경제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 가을 단둥에서 ‘대북한 수출입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의(5.22, 丹東新聞網))
  - 새별지구탄광연합기업소는 산하 고건원탄광과 룡북청년탄광 개발을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 계약’을 체결(5.10, 데일리NK)

#### 사.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남북경제 관계의 경색 국면 심화

-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북한은 남북경협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해 왔음.
  - 2010년(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자’고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남측을 비방
  - 동시에 쌀 및 비료 지원 재개, 남북경협 현안문제(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해결을 촉구
  - 북한 언론매체들은 3.1절을 맞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3.1, 중앙통신)

- 북한은 남한의 무성의로 금강산 실무회담이 결렬되었다고 비난, 남측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막으면 사업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3.4, 중앙통신)
  -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남측 책임이라고 발표(3.19, 중앙통신)
-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북한의 태도는 계속 강경일변도로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4월 8일 금강산 내 남한당국 자산 동결과 관리인을 추방한다는 성명 발표, 13일 금강산 부동산 동결 집행
  - 이어 23일 금강산지구 5개 동결자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선언(4.23, 중앙통신)
  - 북한은 4월 30일 금강산지구의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 완료 후 16명만 남기고 관광관련 인원 전원이 5월 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할 것을 통보
-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 성명 이후 정부는 대북제재 후속조치를 발표함(5.24).
- 대북제재 후속조치에는 북한선박의 제주해협중단,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전면 중단 등 포함
  -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부산항과 북한 나진항을 오가던 북한 국적 정기화물선 ‘단결봉호’의 운항이 3년만에 중단
  - 대북조치 여파로 2010년 5월 남북교역액은 4월 대비 17.6% 감소 (4월: 1억 8,998만 달러, 5월: 1억 5,653만 달러)

- 대북제재 조치 발표 후 북한은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함.
  - 북측은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인원에 대한 추방을 우리 측에 통보(5.26)

## 5. 사회·문화분야 동향

### 가. 식량난 지속 및 악화로 주민들의 생활고 심화

- 북한은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전당적·전국가적 힘을 집중’할 것을 역설하였으나 올 상반기에도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만성적 식량부족과 물가 상승, 특히 화폐개혁 이후 쌀값 폭등 등이 주민들의 생활고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연초에 취해진 시장(장사) 금지, 무역회사 해산(중소무역회사 통폐합), 물류 유통 중단 등의 조치도 주민들의 생활고 가중
-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는바, 지난 1월 중순 이후 아사자 발생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집단 아사가 농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16, 6.17, 좋은벗들)
- 북한 노동당이 식량난 악화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지난 5월 하순 국가의 식량배급 중단을 인정하고, 24시간 시장 거래를 허용하면서 주민들

에게 식량 자급자족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짐.

(6.14, 좋은벗들)

#### 나. 화폐개혁에 따른 시장 통제의 완급 조절

- 2009년 말 화폐개혁 직후 북한 당국은 배급, 임금 지급과 국가상업망을 통한 상품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시장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
  - 대표적인 도매시장 중의 하나인 청진 수남시장의 운영관리를 3월 말부터 중지해 사실상 시장을 폐쇄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함흥시 사포구역의 추평시장도 폐쇄한다는 방침을 취함(1.6, 좋은벗들).
  - “농민시장관리를 운영할 데 대하여”라는 중앙당의 방침을 발표하여 1월 14일부터 시장관리운영을 열흘마다 한번씩 열리는 농민시장 형태로 변경하고, 공업품 및 중국산 상품의 판매를 금지(1.12, 1.26, 좋은벗들)
  - 많은 상인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일부에서는 상품 매점매석 행위도 등장하면서 물가 불안이 야기되자, 지역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
  
- 화폐개혁의 여파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배급과 임금 지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자 최근에는 시장 통제 조치를 완화하고 있음.
  - 식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식량가격이 폭등하자, 2월 중순 당에서는 시장을 허용하고 식량 단속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2.4, 연합뉴스; 2.18, 오늘의 북한소식), 식량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3.16, 좋은벗들)

- 5월 26일 당지시로 시장 운영 시간, 시장 매매물품, 장사 연령 제한을 사실상 철폐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위축되었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6.14, 좋은벗들)
- 이는 배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사마저 금지되자 극빈 계층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추정됨.

#### 다. 주민 통제 강화

- 2010년 4월에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개편하여 주민 통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함.
- 주민 거주지 파악 및 주민등록 관리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지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 주민들의 도강과 탈북이 증가하여 거주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뇌물로 무마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민보안성 산하 주민등록처를 2010년 1월에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관(1.5, 좋은벗들)
  - 주민등록 재확인사업을 통해 행방불명자·탈북자 파악 활동 강화(5.31, 아사히신문)
- 탈북 및 도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 검열을 실시하고 정치강연을 통해 탈북 및 ‘간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함경북도 접경지역에서 2월을 집중 숙박 검열기간으로 정하여 보안기관과 경비대가 합동으로 집중 숙박검열 실시(2.23, 좋은벗들)
  - 평안북도 접경지역에는 중앙당 검열그루빠가 파견되어 핸드폰 소지와 핸드폰을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한 집중 검열을 실시(4.6, 좋은벗들)

- 북한 내부 소식에 의하면 최근 간첩행위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말 회령시에서 시당조직비서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당문서를 수집해 유출한 혐의로 유선인민병원 원장을 체포한 사건에 대한 강연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간첩행위에 대한 경계를 강화(2.2, 좋은벗들; 6.9, 데일리NK)

#### 라. 교육 행정조직 개편 및 고등교육 제도 개혁

- 교육성을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교육위원회 안에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을 설치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6월 23일 발표하였음(6.23, 중앙통신)
  - 북한의 교육행정기구는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정무원이 내각으로 바뀌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를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교육위원회 산하에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교육분야의 행정조직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통합 및 고등교육부문의 제도 개혁을 가속화함.
  - 김일성종합대학은 2010년 4월에 단과대로 재정대학을 신설하고, 5월에는 평양의학대학, 평양농업대학, 계응상농업대학 등 3개 외부대학을 흡수하여, 기존에 단과대학으로 설치되었던 문학대학, 법률대학, 컴퓨터과학대학을 포함하여 부속대학을 총 7개로 증설(6.11, 조선신보)
  - 김책공업종합대학은 2010년 4월 신학기부터 졸업이수학점제를 도입하고, 선택과목제의 적용범위를 확대(4.5, 조선신보)

- 이러한 조치들은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들의 선택폭 강화, 대학 및 학과 통합과 같은 세계적인 교육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의 대학교육 개혁과정에서도 유사한 개혁이 이루어진 바 있음.

#### **마. ‘민족 최대의 명절’, 연례적 행사로 진행**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4.15)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2.16)에 즈음하여 이른바 ‘민족 최대의 명절’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함.
  - 김일성·김정일화 축전, 체육경기대회, 영화감상회, 전국 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 밀영 고향집’ 답사행군,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4월의 명절 요리축전’, 미술전시회, ‘만경대 고향집 방문’, 기념 음악회, 기념 축포 야회,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등
- 김일성·김정일 생일 경축행사는 예년과 같이 연례적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특이 동향은 없음.

#### **바. 언론매체를 동원한 월드컵 열기 확산, 고조**

- 지난해 말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고가 보다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 월드컵 열기는 지난 해 6월, 44년 만에 두 번째로 북한 축구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되면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연초부터 언론매체를 통해 분위기가 보다 확산, 고조됨.
  - 1966년 잉글랜드 대회 8강 신화 주인공들의 인터뷰 (1.7, 조선신보)

- 북한 축구대표팀 남아공 입성 및 훈련 소개(6.9, 조선중앙TV)
  - 브라질과의 경기 결과 신속보도 및 녹화 중계(6.16, 조선중앙TV)
  - 개막전을 시작으로 매일 주요 경기를 녹화중계,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생중계(6.21, 조선중앙TV)
  - 한국의 경기 녹화중계 및 16강 진출 사실 보도
- 축구 열기와 관련해 한 언론매체는 북한주민들이 텔레비전의 축구 중계를 보기 위해 일찍 퇴근하였으며 월드컵 개막 이후 “평양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겨 많은 시민들이 일찍 집으로 퇴근해 가족들과 경기 방송을 보고 있다”고 소개함.  
(6.17, 조선신보)
- 예상외로 북한 내에 월드컵 열기가 확산, 고조되었던 것은 44년만의 본선 진출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도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개혁 이후 보다 심화된 생활고에 지친 주민들을 위무하고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을 방지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적지 않게 작용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사. 북-중 문화·관광교류의 활성화

- 북한 가극 ‘홍루몽’이 베이징에서 연장 공연됨(6.10, 신화통신).
- 중국을 순회공연 중인 북한 피바다가극단의 대형 가극 ‘홍루몽’이 7월 5일부터 7일까지 베이징에서 연장 공연
  - 피바다가극단은 지난 5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맞춰 베이징 TV 대극장에서 홍루몽을 무대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네이멍구(內蒙古) 창사(長沙), 우한(武漢), 푸저우(福州) 등 중국 전역을 순회 공연

-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북-중 합작영화 제작에 합의함.
  - 중조(中朝)간 합작영화 제작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 영화제작인협회 부이사장을 비롯한 4명의 중국 영화계 인사들이 북한 국가영화위원회 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6.4~10)
  - 이들은 방북 기간 북한 국가영화위원회 제작국장과 4.25영화촬영소 관계자들을 만나 대본과 합작 방식 등 합작 영화 제작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연내에 영화 제작을 완료하기로 함(6.11, 연합뉴스).
  
- 북한이 엑스포 사상 처음으로 상하이엑스포에 참가함.
  - 주제는 ‘평양의 도시발전’
  
- 북한이 옌지에서도 관광 비자 발급을 개시함(4.26, 길림일보).
  - 북한 조선관광사 옌지대표처가 4월 13일부터 옌지에서 비자 발급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룡징(龍井)시 싰허(三合)통상구를 출발하여 북한 청진에 도착한 뒤 전세기로 평양에 가는 북한관광 노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북한 변경 일대를 하루 코스로 돌아보는 변경관광은 룡징 등 중국 변경도시에서 발급하는 변경관광 통행증만으로도 가능했지만 평양 등 북한 내륙을 관광을 하려면 반드시 선양(瀋陽) 북한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수속
  - 룡징시가 그동안 관할구역 내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던 북한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을 연변주의 8개 시와 현 거주자는 물론 외지인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로 싰허 통상구를 거쳐 북한 칠보산 등을 관광하는 변경관광도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

-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당시 북·중 양측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2006년 금지한 자국민의 북한 단체관광을 지난 12일부터 전면 허용
- 북·중 문화·관광교류의 활성화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중 우호관계 강화의 일환책으로서 모색,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 6. 군사분야 동향

### 가. 군사력 강화 속 대내 군사 강조 완화

#### (1) 군대의 정치사업 강조

- 예년과 마찬가지로 군대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사상의 강군을 육성함으로써 수령에 절대적 충성을 보이는 군대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 표출
  - ‘선군혁명의 전위 투사’, ‘수령 결사옹위’ 정신 강조
  -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확립’ 강조

#### (2)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군대훈련 집중

-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군대훈련에 집중할 것을 독려
  - 첨단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훈련을 실전에 맞게 실시

(3) 전투동원태세 강화

- 전투동원준비태세 강화
  - ‘고도의 격동상태 유지’를 강조

(4) 군민일치 운동 전개

- 군민일치
  - 주로 ‘인민을 돕자’자는 구호 하에 군민일치 중요성을 강조
  - 사상정신과 도덕, 체육과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로서의 역할 강조

(5) 내부적인 군사활동 완화 움직임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군사적 구호를 자제하는 등 내부적인 군사 활동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움직임을 보였음.
  - 신년 공동사설 군사분야에서 ‘선군의 총대’, ‘선군혁명 역량’ 등 의례적인 어휘만 구사
  - 여타 분야에 있어서도 ‘군대가 핵심’이며 ‘선차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한적으로만 사용
  - 국방공업 우선 발전 등 군사력 우선 건설 관련 언급 상대적 퇴조현상 노정
  - 인민군대를 대규모 경제건설 역량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표출
- ※ 인민군대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 건설전투장들에서 력사에 빛날 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 2010년 상반기(1~6월)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지도가 경제분야의 현지지도에 비해 수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대내 군사활동의 상대적 완화 현상을 반영
- 상반기 김정일의 군사관련 활동은 21여 차례 집계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군사합동 훈련 참관 등 순수 군사현지지도는 7여 차례에 불과
  -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관하 군부대 시찰(1.5)
  -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 참관(1.17)
  -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 태양절 즈음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종합훈련 참관
  - 군 창건 78돌 즈음 조선인민군 제115군부대 훈련 참관
  - 군 창건 78돌 즈음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 방문
  - 제593군부대 지휘관 강습소 시찰
- 이에 비해 군대 경제시설 방문 또는 군대예술단 공연 참관은 무려 14여 차례 이루어졌음.
  - 군대 경제시설 방문: 조선인민군 제313대연합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 현지지도 등 3차례(1.12)
  - 군대예술단 공연 참관: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등 11여 차례(1.18)
- 북한의 내부 군사활동 완화 의도는 장거리 로켓 발사 및 2차례에 걸친 핵실험 이후 ‘정치·군사적 강성대국’에서 ‘경제적 강성대국’ 진입을 과시하기 위한 분위기 창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됨.
  - 특히 김정일의 군대예술단 공연 참관 수를 늘린 것은 군대 및 일반인민들에게 ‘군사 강성대국’ 건설 완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의 일환

으로 분석됨.

## 나. 대남 군사적 위협 기반 조성

### (1) 군부 중심의 대남공작라인 구축을 통한 대남 군사위협 기반 조성

- 북한의 대남공작 라인이 군부 중심으로 재편
  - 노동당 소속이었던 작전부와 35호실, 그리고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국을 통합해 확대 개편된 공작기구로서 인민군 정찰총국 등장
  - 인민군 정찰총국 등장은 대남공작 활동에 북한군부가 전면에서 부상한 것을 의미
  - ‘김정일 국방위원장 →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 또는 김정은 →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 직할통치체계 가동
  -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신속하고도 강력한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 추진
- 2008년 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협하고 공단출입 인력과 차량을 대폭 줄이는 조치를 주도해 온 인물이 인민군 총정찰총국장으로 임명된 김영철 상장이었다는 것은 북한 군부가 북한의 대남위협공작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반영

### (2) ‘정치논리’ 중심에서 ‘군사논리’ 중심의 대남 공작 초점 이동

- 선군정치가 군사적 수단, 즉 ‘힘’의 외교를 추구하고 이에 기반한 외교(선군시대 외교전략) 또는 대남전략을 정당화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대남 비난공세에 더하여 각종 군사적 위협 강화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새해 벽두부터 군사적 위협공세로 시작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 견지
- 상반기 대남 군사적 위협 행위로 군사 중심의 대남공작 본격화
  - NLL 인근 포함 서해상 해상사격 구역 지정 이후 서해 백령도 및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향한 포사격(1.27) 및 연평도 인근 북한 쪽 해상 해안포 사격 실시
  - 남한의 초계함 천안함 폭침

### (3) 군사회담 중심의 남북대화 전개

- 남북당국 간 대화는 북한군부가 주도하는 군사회담 중심의 회담이 주를 이루어 왔음.
  - 북한 당국이 군사회담 형식을 통해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각종 대남공세
  - 2010년 상반기(1~6월) 남북당국 간 대화의 대부분이 군사실무회담

### Ⅲ. 분야별 정세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 1. 분야별 정세 전망

##### 가. 정치분야

- 김정일의 업적 찬양을 통한 정권의 정통성 강화, 당 기능의 제고를 통한 정책의 침투력 강화, 군대와 사회억압기구를 동원한 사회통합의 유지라는 국내정치적 목표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천안함 폭침이 날조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외부 위협을 선전함으로써 당분간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에도 8월의 을지프리트덤가디언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될 것인바, “선군혁명노선, 총대중시” 선전과 김정일 중심의 대동단결 및 당 중앙위원회 사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
  - 이 과정에서 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정책에 대한 군부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추측
- 그러나 인민생활 향상이 올해의 핵심 국정과제인바, 내부적으로는 대중노력에 입각한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단행될 경우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의 조달이 어려울 것인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

- 9월 상순의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조직을 정비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등 10월의 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루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후계자 김정은의 이상화 강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시사하는 선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나. 외교분야

-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긴장국면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및 평화협정 체결 결단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전망
  - 핵실험과 핵 억제력 강화를 카드화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한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지사 초청 등을 통해 대미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대북압박 견제 및 정치·경제적 지원 확보를 위한 중·러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본에게는 과거청산에 대한 전향적 자세 등을 계속 촉구할 가능성
-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여를 부정하기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UN총회 등의 국제외교무대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지원세력 확보를 위해 80년대 이후 둔화된 비동맹국가와의 우호증진 노력 재개 예상

## 다. 대남분야

- 당분간은 남한 정부의 대북압박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천안함 사건 ‘진상파악’과 ‘검열단 수용’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남한내의 남남갈등 유발을 기도할 것으로 전망
- 해방 65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전후로 한·미공조에서 벗어나 ‘민족공조’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
  -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장치들과 세력들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정치공세와 통일전선전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국의 대북 압박 완화 및 남북경협·지원 확보, 9, 10월의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냉각상태 지속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물밑 접촉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올 가능성이 있음.

## 라. 경제분야

- 북한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주민 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특히 화폐개혁 이후 악화된 식량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가을 추수기 이전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식량수급의 불안정 및 물가 폭등을 야기하는 시장통제와 같은 반시장적조치는 당분간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2002년 7.1조치 이후 종합시장 허용 등과 같은 시장 활성화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허

용하지 않을 것임.

- 중국을 제외한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것임.

○ 대외경제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경협 강화에 주력할 것이며, 라선시 개방 확대와 이미 발표된 국가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외자유치에 나설 것임.

- 중국과의 무역,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국가개발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일 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 어느 국가도 북한의 외자유치 계획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
- 특히 미국이 북한의 불법 해외거래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실시되고 있어 국가개발계획 자금조달 창구인 대풍그룹을 통한 외자유치는 거의 불가능
- 일부 라선시와 접한 북·중 접경지역의 연계 개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다소의 진전이 가능함.

○ 남북경협은 핵문제,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개선되지 않을 것임.

- 비록 한국이 출구전략에 나서더라도 그 범위는 소규모 인도적 지원 등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됨.

#### 마. 사회·문화분야

○ 화폐개혁의 여파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고와 사회경제적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외부사회의 지원과 같이 식량을 비롯한 물자의 안정적 공급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한편으로는 강제기구에 의한 검열과 처벌,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탈북, 내부 정보 유출 등 ‘비사회주의적’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
- 교육부문에서 북한 당국은 대학 및 학과 통폐합, 교육과정 개선 등 인재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 조치와 서구 국가와의 교육 교류 확대를 부분적, 점진적으로 지속해나갈 것임.
  - 그러한 노력의 성공 여부는 물적 자원의 원활한 확보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

#### **바. 군사분야**

-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하여 군대 내 김정은 우상화 정치활동을 심화시켜나갈 것으로 보임.
  -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군대의 충성확보 노력 강화
- 군대장악을 위한 군사지도권 확보차원에서 김정은의 군대관련 활동 확대
  - 김정일 군대 현지도 시 동행 빈도 제고
  - 군사관련 직접적인 정책결정 역할 심화·확대
  - 김정은 명의의 군사 지시 및 결정 확대 등

- 하반기 북한은 내부체제 단속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각종 군사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 군사동원태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하반기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적개심 고취 및 군사대응태세 유지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전가 행위 및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대남군사위협 활동을 정당화
  - 천안함 사건 관련 북한의 검열단 파견 주장 지속
- 미국 및 남한의 대북제재 동참 및 강화를 빌미로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3차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핵억지력 강화’ 의지 강조로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활동 지속
- 천안함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제재 국면을 피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 요구를 더욱 구체화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은 6자회담 복귀로 제재국면 탈피, 국제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 획득, 미북군사안보대화 전개를 통한 미북평화협정 체결 분위기 도출을 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대남차원에서는 각종 군사위협을 지속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대남 군사적 위협 및 시위를 위해서 남북군사회담을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음.

- 군사회담을 남한정부에 대한 비난 및 군사적 위협 성토 기회로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보임.

## 2. 정책적 시사점

- 김정일 건강문제로 후계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은 후계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첫째, 경제난 완화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 둘째, 후계체제 정당화를 위한 내부단속 및 충성유도 활동 강화
  - 셋째, 후계자 김정일의 지도력 부각을 위한 정책적 선택 부각
  - 넷째, 권력엘리트들의 권력투쟁 가능성 차단
- 경제난 완화로 주민생활 향상 목표를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바,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임.
  - 대화유도를 위한 유화조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화재개 요구
  - 군사적 위협을 통한 인위적인 남한의 정책전환 유도노력 강화
- 북한은 이러한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가. 천안함 관련 대남 비난 강화를 통한 남한사회의 갈등과 분열 기도

- 각종 매체를 통해 천안함 관련 대남 비난 및 전쟁발발 위협 관련선전 선동 활동 확대
- 북한 당국은 이러한 대남 비난 활동을 통해서 남한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켜 북한 주도의 남북관계 변화 환경을 창출하고자 함.
  - 갈등과 분열 야기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남한의 대북지원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할 것임.

#### 나. 무력시위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약화 또는 차단 획책

- 남한이 미국과 연합하여 대북 무력시위를 위한 각종 군사훈련(대잠훈련 등)을 강화하게 될 경우 북한은 다음과 같은 맞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큼.
  - 단·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 3차 핵실험 실시 움직임 가능성
  - 북한 서해안 지역의 포사격 준비태세 견지
  - 일반 군사훈련을 강화 가능성
  - 북한함정의 NLL 침범 행위 확대 등
  - 북한 내부 전쟁준비태세 지속
- 북한의 무력시위는 남한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게 되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반미 분위기 확대와 한미 동맹 약화 도모

- 한·미연합 군사훈련 → 전쟁 초래 공식이 일반화되면서 한미군사훈련 무용론을 확산시켜나가고자 할 수도 있음.

#### 다. '비군사적' 회담 유도를 위한 군사회담 활용 모색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하여 천안함 사태로 인한 고립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의 재개를 통한 주도권 확보 노력을 추구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북한 당국은 군사회담 형식을 통해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각종 대남 비난공세를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천안함 사태 관련, 유엔사-북한군 간의 실무회담을 북한이 수용한 것 역시 '비군사적' 회담 유도를 위한 군사회담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됨.
  - 유엔사의 천안함 사태를 정전협정 틀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에 맞서 북한은 검열단 파견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견지
  - 향후 북한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 개최에 이어 남북군사회담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가능성이 큼.
  - 이 경우, 남북한 관계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반감되는 반면, 국방부의 역할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부록. 북한방송 주요 논조(분야별 구분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1월 1일 금요일	김영남, 수단 독립 54돌과 팔레스티나 혁명개시 45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수반에게 1/1 각각 축전 黨軍青年報 신년공동사설,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 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발표	중통(1/1)	외교	
2010년 1월 2일 토요일	김영일, 1/2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신년 공동사설 과업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참석 『새해 공동사설 과업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1/2 김영일 (내각총리)·최태복(당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 원장)·최영림(평양시당 책임비서,보고)·장인수 (평양 시 당비서, 사회) 등 10만여명 참가 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중방(1/2)	정치	
2010년 1월 3일 일요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박남기,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시 수행 장성택,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시 수행 국내산(北) TV 1대 1~3만원, 담요 1,500~3,000원에관 매(평양제1백화점) 등 “대중소비품 가격인하로 필요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화폐개혁 단행이후 주민들의 “신권가치 반응 및 상품정보” 소개	중통(1/3) 중통(1/3) 중통(1/3) 조선신보 (1/3)	경제 경제 경제 경제	
2010년 1월 4일 월요일	김정일, 재령광산 현지지도 김기남, 김정일 재령광산 현지지도시 수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라선시'를 '특별시'로 결정함에 대한 정령 제560호 발표 평양연극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 기록영화(대를 이어 복수하리라)제작	중통(1/4) 중통(1/4) 중통(1/4) 중통(1/4)	경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2010년 1월 5일 화요일	김정일, 1/5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관하 구분 대 시찰 김정일, 1/5 故박기서 영전에 화환 전달 '언론장악 소동이 빚어낸 사태' 題下 최근 MBC 방송 사 장 등 일괄 사표 제출 관련 南집권세력의 '비열하고 끈 질긴 언론장악 책동'이라고 주장	중방(1/5) 중방(1/6) 평방(1/5)	군사 정치 대남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1월 6일 수요일	김영일, 1/6 再任된 루마니아 수상에게 축전	중통(1/7)	외교	
2010년 1월 7일 목요일	김정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예성강 청년 2호 발전소 건 설장 현지도	중통(1/7)	경제	
	장성택, 김정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예성강 청년 2호 발 전소 건설장 현지도시 수행	중통(1/7)	경제	
	국가과학원 양어과학연구소, 우량품종의 ‘이육은붕어’ 새로 육종	중통(1/7)	경제	
2010년 1월 8일 금요일	노성실,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된 여맹원들의 공동사실 관철 모임에서 보고	중방(1/8)	정치	
	‘북남관계 개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題下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관계로 전환, 북남공동선언 들 성실 이행” 강조	노동신문 (1/8)	대남	
2010년 1월 9일 토요일	박남기, 1/9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공동사실 관철 궤기모임 참석	중방(1/9)	정치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조선인민의 확고한 신념’ 題下 김정일 노작(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발표 18돌을 맞으며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을 강조	중통(1/9)	정치	
	‘핵밀약문서는 핵전쟁의 증거물’ 題下 최근 ‘美-日 핵밀 약문서’의 발견은 ‘비핵화3원칙’의 허위기만성을 드러 낸 증거라며 “일본의 핵무장화책동 중단” 촉구	노동신문 (1/9)	외교	
2010년 1월 10일 일요일	김정일, 평남 평원군 남산리 거주 「류남호」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	중방(1/10)	사회 문화	
	김정일, 새로 꾸려진 강동 약전기구공장 현지도	중통(1/10)	경제	
	올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집 단달리기 개최	중통(1/10)	사회 문화	
2010년 1월 11일 월요일	재령광산 종업원들, 1/11 김락희(黃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 下 김정일 말씀 관철 궤기모임 진행	중방(1/12)	정치	
2010년 1월 12일 화요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13대연합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돼지공장 현지도	중통(1/12)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체육과학정보수집연구 및 보급기지인 체육과학도서관 개관	중통(1/12)	사회 문화	
2010년 1월 13일	김정일, 평양역 등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과 종업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1/13)	사회 문화	
수요일	새해 공동시설 관철 선전화 전람회,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	중방(1/13)	사회 문화	
2010년 1월 14일	김정일, 평양시 만경대구역 당상 1동 유남호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	중방(1/14)	사회 문화	
목요일	김영일, 1/14 평양 고려호텔에서 진행된 당 중앙위 국제부 주최 중국 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연회 참석	중통(1/14)	외교	
2010년 1월 15일	김정일, 제534군부대 산하 10월 7일 돼지공장 현지지도	중방(1/15)	군사	
금요일	김정일, 1/15 통일애국투사 손성모의 80번째 생일상 전달	중방(1/15)	사회 문화	
	‘붓대를 위력한 사상적 무기를 틀어쥐시고’ 題下 「새날신문」 창간 (1928.1.15) 65돌 즈음 “혁명과 건설에서 붓대는 백만총대의 위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붓대중시 강조기념 보도	노동신문 (1/15)	사회 문화	
	최근 평양화장품 공장에서 주름방지효과를 나타내는 「은하수살결물」, 「은하수크림」 등 기능성 화장품 신규개발 생산 성과 보도	중방(1/15)	경제	
2010년 1월 16일	경공업부문 공장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 호응 궤기모임 각각 진행 및 금속공업성 등 성·중앙기관 정무원들의 강철 전선 적극 지원 보도	중방(1/16)	경제	
토요일	南 세종시 수정안 공식발표 관련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고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野黨 등 비난 논평 보도	중방(1/16)	대남	
2010년 1월 17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 참관	중방(1/17)	군사	
일요일				
2010년 1월 18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1/18)	군사	
월요일	평양제1백화점에서 1/1 오전 중 155대 등 국내산 TV(삼일포: 14,21,29인치, 다박술: 21인치 반평면형) 판매 증가 및 연간 30만대 양산체제 돌입 등 김병관 지배인 자랑	조선신보 (1/18)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1월 19일 화요일	새해 공동사실을 반영한 우표(묶음전지 1종)와 동물들을 형상한 우표(개별우표 4종)발행	중통(1/19)	사회 문화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인류진화발전사 연구사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1/20)	사회 문화	
	김정일, 철도과학분원 철도차량연구소 과학자들의 ‘축받이’재료연구 완성과 이를 생산에 도입한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기술자-노동자들에게도 「감사」 전달	중방(1/20)	경제	
	김정일, 흥남제련소와 흥남대흥수산기업소·서중수산사업소 현지지도	중통(1/20)	경제	
	김정일, 故 옥봉린(黨중앙위 후보위원, 김일성정치대학 연구사)영전에 화환 전달	중통(1/20)	사회 문화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1호 물길굴 공사 완공	중통(1/20)	경제	
	北 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제1차 회의,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	중통(1/20)	경제	
2010년 1월 21일 목요일	김정일, 故 김영준(노력영웅·인민과학자·교수)영전에 화환 전달	중통(1/21)	사회 문화	
2010년 1월 22일 금요일	김정일, 국립민족예술단 공연 관람	중통(1/22)	사회 문화	
	김정일, 1/22 조인각 노인(평양시 대동강구역 거주)에게 100살 「생일상」전달	중방(1/24)	사회 문화	
2010년 1월 23일 토요일	김정일, 새로 건설된 법정과 중앙재판소 청사 현지지도	중통(1/23)	정치	
	김정일, 평양밀가루공장 및 용성식료공장 현지지도	중통(1/23)	경제	
2010년 1월 24일 일요일	도시경영성에서 전국의 수십 개 마을에 수백 세대의 살림집과 수십 개동의 공공건물 건설 추진 및 상·하수도망 건설, 보수 등 도시미화사업 전개	평방(1/24)	경제	
2010년 1월 25일 월요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돼지공장 현지지도	중통(1/25)	군사	
	김정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및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1/25)	경제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 제3권 증보판(김정일이 1968년10월부터 1971년2월까지 발표된 47권의 저작수록) 출판	중방(1/25)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1월 26일 화요일	김정일, 9월 제철종합기업소와 덕현광산 현지지도	중통(1/26)	경제	
2010년 1월 27일 수요일	김정일, 평안북도내 새로 건설된 도로 시찰	중통(1/27)	경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간잔광형광체' (도로표식판, 가로등, 각종계기 등)개발 보도	중통(1/27)	경제	
2010년 1월 28일 목요일	김영남, 이디오피아 비행기 추락사고 관련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	중통(1/28)	외교	
2010년 1월 29일 금요일	김영일, 北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보고	중통(1/29)	정치	
2010년 1월 30일 토요일	김정일, 개건된 향산호텔(묘향산 소재) 현지지도	중통(1/30)	경제	
2010년 1월 31일 일요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1/31)	군사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중통(1/31)	군사	
	김정일, 北-베트남 외교관계 설정 60돌 즈음 1/31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농 득 마잉'에게 축전	중통(2/1)	외교	
	21세기의 경인4적' 題下 "南 국방부장관 김○○, 통일부장관 현○○, 정보원장 원○○, 외교통상부장관 유○○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장본인"으로 원색비난	중방(1/31)	대남	
2010년 2월 1일 월요일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안아오신 위대한 전변' 題下 광명성 2호 발사 등 기적과 변혁의 강성대국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은 "장군님의 초강도 강행군의 선군혁명영도와 軍民의 불굴의 정신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며 영도자에 대한 믿음과 위대성 선전	평방(2/1)	정치	
2010년 2월 2일 화요일	김정일, 2/2 베트남 공산당 창건 80돌 즈음 '농 득 마잉' 총비서에게 축전	중통(2/2)	외교	
2010년 2월 2일 화요일	김정일, 2/2 전국 청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답사 행군 참가자들에게 「선물」전달	중방(2/3)	정치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2월 3일 수요일	김정일, 함경남도 금야군 '원평대홍수산사업소' 현지지도 네 팔기자협회, 2/3 自國駐在 北 대사를 통해 김정일에게 「선물」과 「2009년 평화상」 전달	중통(2/3) 중통(2/8)	경제 외교	
2010년 2월 4일 목요일	2.4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김정일 영도업적 체득하기 위한 전국연구토론회 참석	중방(2/4)	정치	
2010년 2월 5일 금요일	김정일, 2/5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공연 관람	중통(2/5)	사회 문화	
2010년 2월 6일 토요일	김영일, 2/6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 대표단과 회담	평방(2/7)	외교	
2010년 2월 7일 일요일	김정일,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 지도	중통(2/7)	경제	
2010년 2월 8일 월요일	김정일, 2/8 「왕자루이」 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 접견 및 만찬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再次 방문 및 최상의 「특별감사」 전달	중통(2/8) 중통(2/9)	외교 경제	
2010년 2월 8일 월요일	김기남, 2/8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김일성의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사회 * 주석단: 김영남, 이용무, 최태복, 김정각, 김기남, 양형섭, 최영림, 김영대	중통(2/8)	정치	
2010년 2월 9일 화요일	김정일, 2/9 윤능배(만경대구역 거주) 노인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 유엔사무총장 특사(「비 린 파스코」, 정치문제 담당 부 사무총장) 일행 2/9 평양 도착 및 駐在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 비행장 영접 김정일 생일 즈음, 제19차 「백두산상」 국제 휘거 축전, 평양에서 2/15~2/17까지 진행 예고	중통(2/10) 평방(2/9) 중통(2/9)	사회 문화 외교 사회 문화	
2010년 2월 10일 수요일	김정일, 길주철도분국 당위원회 지도원 등에 「감사」 전달 고고학자들, 평양시 승호구역 리천리 일대에서 단군시기 집자리 유적(남북길이 10.6~10.8m 동서넓이 6.15~6.3m 단검, 창끝, 도끼 등 발굴) 새로 발굴	중방(2/10) 중통(2/10)	사회 문화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김정일 생일(2.16)관련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안동춘(문화상/개막사)참가 下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	중통(2/10)	사회 문화	
2010년 2월 11일 목요일	김정일 생일 축하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이기석 총련 부의장),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주영일 부위원장) 축하단, 평양도착	중방(2/11)	외교	
	김영남, 유엔사무총장 특사(「비 린 파스코」, 정치문제 담당 부사무총장)일행과 담화 - 특사일행, 김영남을 통해 김정일에게 유엔사무총장의 구두친서와 선물 전달	중통(2/11)	외교	
	北 농업기계화연구소 과학자들, ‘벼수직파기계’(정보당 벼 수확고 20%향상, 1일 2~3정보 파종 가능) 연구 도입	중통(2/11)	경제	
	김정일의 혁명사적 표식비 ‘길이 빛나라 불멸의 영도자 육이어’준공식, 2/11 백제통책임비서 등 참가 下 원산청년발전소에서 진행	중통(2/12)	경제	
2010년 2월 12일 금요일	평양시, 관리사업을 종합조종실에서 원격조종하는 ‘가로등중앙조종체계’ 수립	중통(2/12)	경제	
2010년 2월 13일 토요일	김정일에게 세계 각국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층 저명 인사들, 해외동포들이 200여종의 근 1,700마리(짐승류 72종, 조류 35종, 양서 파충류 29종, 물고기류 80종 등)의 동물선물 선전	중통(2/13)	외교	
2010년 2월 14일 일요일	2010년 설명절 맞아 만수대언덕 김일성동상에 김정일 및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등 名義 꽃바구니 진정	중통(2/14)	사회 문화	
2010년 2월 15일 월요일	김정일,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 음악회 관람	중통(2/15)	사회 문화	
	기상관측자료 인용 “김정일은 2009년 한 해 동안 강추위와 삼복더위를 헤치고 200여개의 단위를 현지지도하는 영웅적 장정을 보여주었다”며 현지지도 업적 칭송 및 “공동구호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 선동	중방(2/15)	정치	
2010년 2월 16일 화요일	北, 각 도·시·군에서도 2/16 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진행	중방(2/16)	정치	
	러시아 대통령, 김정일 생일 관련 축전	중방(2/16)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2월 17일	김정일,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중통(2/17)	사회 문화	
수요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2/17)	군사	
	제19차 『백두산상』국제취거축제 폐막식, 빙상관에서 광범기, 박수길(내각 부총리),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 참석 下 진행	중통(2/17)	사회 문화	
2010년 2월 18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2/18)	군사	
목요일	김정일방송대학 제45기 졸업식, 현지에서 진행	평방(2/18)	사회 문화	
2010년 2월 19일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불멸의 영도’ 題下 김정일 노작(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 선포) 발표 36돌 관련 “노작의 사상, 이론 정당성” 설파 및 “주체사상화 위업 영도력과 빨찌산식 강행군 현지지도”	노동신문 (2/19)	정치	
금요일	韓-美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3/8~3/18) 계획을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북침전쟁연습”으로 비난	중방(2/19)	대남	
2010년 2월 20일	김정일,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방(2/20)	경제	
토요일				
2010년 2월 21일	김정일, 새로 조직된 인민보안성 협주단 공연 관람	중통(2/21)	사회 문화	
일요일				
2010년 2월 22일	김정일,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 관람	중통(2/22)	사회 문화	
월요일	김정일, 2/22故윤광섭(평양교예단 인민배우)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2/22)	사회 문화	
	‘전국 기자연론인 대회’ 김영남(김정일‘서한’전달), 최태복, 김정각, 김종란, 김기남(보고) 및 출판 보도부문 일꾼 등 참가 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방(2/22)	정치	
2010년 2월 23일	세계보건기구 보조총국장(에리크 라로쉐) 평양 도착	중통(2/23)	외교	
화요일	전국 기자연론인 대회 참가자들, 2/23 당, 군대, 국가 간부들과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기념촬영	중방(2/24)	정치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2월 24일 수요일	김영남, 김영일(내각총리), 2/24 쿠웨이트 국경철 49돌 과 해방절 19돌즈음 同國 추장 및 내각 수상에게 각각 축전 발송	중통(2/24)	외교	
2010년 2월 25일 목요일	「전국농업대회」 2/25 김영일(내각총리), 이용무(국방부 부위원장),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곽범기, 박명선, 박수길(내각 부총리들, 곽범기 보고) 및 道黨 책임비서 들, 근로단체 일꾼 등 참가 下 평양에서 개막	평방(2/25)	경제	
2010년 2월 26일 금요일	김정일, 심영애(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등에게 80회 「생일상」 전달	중방(2/26)	사회 문화	
	경제대표단, 평양에서 베트남 경제대표단과 회담록 조 인식 진행	중통(2/26)	외교	
	김영남, 2/26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2/26)	외교	
	北, 불법입국 南 주민 4명 억류 및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 발표	중통(2/26)	대남	
2010년 2월 27일 토요일	사실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과 사 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새로운비약을 이룩하자’ 題下 ‘전 국농업대회’는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대회였다며 김정일 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위한 투쟁에서 애국적 헌신 성을 높이 발휘해 나갈 것을 강조	노동신문 (2/27)	경제	
2010년 2월 28일 일요일	조선노동당출판사, 공동구호 관철 선전화 ‘모두 두 공 동구호 관철에로 10월의 경축관장을 향하여’ 등 출판	중방(2/28)	정치	
2010년 3월 1일 월요일	‘최상급 축구연맹전’ 1차 경기(2/20~3/22) 김일성경기 장에서 진행 남,여 각각 9팀, 8팀 참가	중통(3/1)	사회 문화	
2010년 3월 2일 화요일	김철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공 업총생산액 108.5%, 100.2% 각각 완수 등 각 경제 단위 들의 2월 계획 초과완수 보도	중방(3/2)	경제	
2010년 3월 3일 수요일	폴란드 음악가 「쇼팽」 탄생 200돌 즈음 영화감상회, 대 동문영화관에서 한철(문화성 부상) 및 駐在 폴란드 대 사 등 참가 下 진행	중통(3/3)	사회 문화	
2010년 3월 4일 목요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3/4)	사회 문화	
	김정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3/4)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김정일, 3/4 통일애국투사 '이경구'에게 80돌 생일상 전달	중통(3/5)	정치	
	만경대, 칠골, 금천 남새 전문농장 등에서 봄철 영농지원 농기계 수리·정비 완료 및 협동농장 지원	평방(3/4)	경제	
2010년 3월 5일 금요일	김정일,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 위원회 노동자 '성현애', 평양예방약공장 노동자 '김재순', 평양시설건설사업소 노동자 '박성희' 등에게 「감사」 전달	중통(3/5)	사회 문화	
	김정일, 통일애국투사 리경구에게 「80돌 생일상」 전달	중통(3/5)	사회 문화	
	北, 남자축구대표팀, 2010년 아시아축구연맹 도전자컵 (2/16~2/27, 스리랑카) 우승 및 2011년 아시아컵 축구경기대회 본선 참가자격 획득	중방(3/5)	사회 문화	
	김영남, 3/5 가나 독립 53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3/5)	외교	
2010년 3월 6일 토요일	김정일, 2.8 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경축 함흥시 군중대회 참석	중방(3/6)	경제	
	김정일, 2.8 비날론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일꾼들에게 「특별감사문」 전달	중방(3/6)	사회 문화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北, 南, 海外 위원장 회의」에 참가할 남측(김상근 상임대표)과 해외측(곽동의 위원장)대표단, 평양 도착	중방(3/6)	대남	
2010년 3월 7일 일요일	3/7 시리아 3/8혁명 47돌 즈음 同國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에게 축전	중통(3/7)	외교	
	「평양산원」 開院 30돌 즈음 연인원 673만명 의료혜택 및 외국 여성 7,000 來院, 김정일의 100여차에 130톤 산골 등 보약재 전달 자랑	중통(3/7)	사회 문화	
	「최악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題下 최근 일본에서 과거 「인체실험」 등 진상조사 착수 발표 관련 “지금이라도 「731부대」의 은폐된 최악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모든 과거 청산 有效 강조	민주조선 (3/7)	외교	
2010년 3월 8일 월요일	김영남, 3/8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국제부녀절 100돌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	중방(3/8)	정치	
	김영남, 3/8 駐北 中國 신임대사 「류홍재」에게 신임장 접수 및 담화	중방(3/8)	외교	
	3.8 국제부녀절 100돌 기념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통(3/8)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3월 9일 화요일	김영남, 3/9 토고대통령 「포르 에쏘집나 그나쌍그베」 再選 축전 3.8 국제부녀절 100돌 즈음 지난 10년간 학위소유자 증 가 속에 130여명 박사 배출 등 사회주의 제도 찬양 平南道 평성시에 ‘학생소년공전’ 건설 中 자랑	중통(3/10) 중방(3/9) 중통(3/9)	외교 사회 문화 사회 문화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김정일, 자강도 희천시내 공장들(철성전기공장, 희천도 자기공장 등)현지도 이제강(당 중앙위 제1부부장),장성택(당 중앙위 부장), 김정일 자강도 희천시내 공장들(철성전기공장, 희천도 자기공장 등 )현지도시 수행 「국가개발은행」이사회 제1차 회의, 양각도 국제호텔에 서 진행	중통(3/10) 중통(3/10) 중통(3/10)	경제 경제 경제	
2010년 3월 11일 목요일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은종석과 老兵들인 김윤식·이춘기에게 「생일상」전달 김영남, 3/11 칠레 공화국 대통령에게 就任 관련 축전 駐北 쿠바대사관, 외교관계 설정 50돌 즈음 「상품전시 회 및 영화감상회」 진행 중국과 합작으로 ‘전기자동차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중 공동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 불장식센터, 네온LED(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조명 이용 평양, 남포, 회령시 등 전국의 도시들에 불장 식을 도입할 예정 러시아 차이코프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대표단, 평양 도착	중통(3/11) 중통(3/11) 중통(3/11) 중통(3/11) 중통(3/11) 중통(3/11)	사회 문화 외교 외교 경제 경제 외교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협주단 공연 관람 및 「감사」 전달 예성강 청년2호발전소, 4호 물길궁 완공 국가과학원 식료연구소, 젃산균을 이용한 연두부(항암 작용 등) 개발	중통(3/12) 중방(3/12) 중통(3/12)	군사 경제 경제	
2010년 3월 13일 토요일	김정일, 사리원시 3중3대혁명 붉은기 미곡협동농장 현지 지도 이제강(당 중앙위 제1부부장),장성택(당 중앙위 부장), 김정일 사리원시 3중3대혁명 붉은기 미곡협동농장 현 지도현지도시 수행	중통(3/13) 중통(3/13)	경제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유엔인권이사회의 막 뒤에서 꾸며지는 음모’ 題下 美의 ‘北 인권상황 담당 특별보고서’ 제도(2004년도 설치) 연장 관련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비난” 및 “同 제도 불인정과 ‘결의안’ 배격” 주장	중통(3/13)	외교	
2010년 3월 14일	황해남도 해주소년단야영소, 개건확장공사 완공 러시아 차이코프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대표단,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중방(3/14) 중방(3/14)	경제 외교	
2010년 3월 15일	김영남, 駐北 인도 新任 대사 『프라타프 싱』 신임장 접수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과 러시아 ‘차이코프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 음악대학’, 3/15 평양에서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조인	중통(3/15) 중통(3/15)	외교 외교	
2010년 3월 16일	김영일, 3/16 駐北 中 대사 『류홍차이』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단천지구 대흥청년영웅탄광, 용양광산 등지의 마그네사이트 증산투쟁 성과	평방(3/16) 중통(3/16)	외교 경제	
2010년 3월 17일	김정일, 러시아 대통령 등에게 생일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과학영화 ‘영양포에 의한 무토양 잔디재배’와 ‘왕다래 나무를 많이 심자’ 등 과학영화 제작	중방(3/17) 중통(3/17)	외교 사회 문화	
	『北-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949.3.17)즈음 ‘날로 발전하는 조-러 친선관계’ 題下로 兩國간 “경제, 문화 분야의 협조와 교류 발전” 소개 등 對러 유대감 표명	노동신문 (3/17)	외교	
	각지 농촌들 봄밀, 보리심기 완료 보도	중통(3/17)	경제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전시가요 음악회’, 3/17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중방(3/18)	사회 문화	
2010년 3월 18일	反美, 反日 주제 새 우표(개별우표 2종) 발행	중통(3/18)	사회 문화	
2010년 3월 19일	北, 무상치료를 실시하는 데 대한 결정 발표(1952.11.13) 以來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며 사회주의 보건제도 자랑	중통(3/19)	정치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3월 20일	김정일, 김일 생일 100돌 즈음 3/20 대성산혁명열사능 김일 반신상에 화환 전달	중방(3/20)	사회 문화	
토요일	김영남, 대성산혁명열사능 김일 반신상에 화환 진정식 참석	중방(3/20)	사회 문화	
	‘환멸을 자아내는 잡소리’ 題下 최근 統一部 長官의 강 연(북핵문제로 한반도 평화불안) 관련 對北 관련 언급 은 “우리(北)를 모함하고 고립 압살해 보려는 악담이며, 황당한 수작”이라 비난	노동신문 (3/20)	대남	
2010년 3월 21일	김정일, 3/21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 총서기에게 黨 창건 55돌 관련 축전	중통(3/21)	외교	
일요일	黨과 國家 간부들 및 도당 책임비서들, 3/21 김책제철연 합기업소 참관	중통(3/21)	경제	
2010년 3월 22일	불법입국 미국공민 ‘아이잘론 말리 곰즈’(男, 1979년 6 월 19일생, 美 보스톤 거주) “범죄자료들의 확정에 따라 재판에 기소하기로 결정” 보도	중통(3/22)	외교	
월요일				
2010년 3월 23일	김정일, 평양산원에 산골, 고려약재, 의료기구와 설비 등 전달	중방(3/23)	사회 문화	
화요일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 을 칭송하여 창작 보급된 시가 작품 8편(백두명산 등, 중국 길림성 등에서 입수) 발굴, 수집	중통(3/23)	사회 문화	
2010년 3월 24일	김정일,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모범을 보인” 인민봉사총국 운전기자재 공급소 일꾼-종업원 등에게 「감사」 전달	중방(3/24)	사회 문화	
수요일				
	北-인도 정부 사이 ‘2010~2012년도 문화교류계획서’, 3/24 전영진(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과 駐北 인도대 사 등 참가 下 인민문화공전에서 조인	중통(3/24)	외교	
	흥기하전투(1940.3.25) 70돌 즈음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 업적 칭송	노동신문 (3/24)	정치	
	<세계결핵의 날>즈음 3/24 인민대학습당에서 보건성과 각지 결핵예방 및 치료부문 일꾼, 駐北 세계보건기구 대표 성원 등 참가 下 행사 진행	중통(3/24)	사회 문화	
	옥류관에 요리 전문식당 신설, 3/24 군인건설자들 꺾기 모임 진행	중방(3/24)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3월 25일	김정일, 평안북도 천마기계공장과 대흥산기계공장 현지지도	중통(3/25)	경제	
목요일	北-라오스 친선협회 결성 20돌 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 박관오(평양시 인민위원장), 駐北 세계보건기구 대표 성원 등 참가 下 행사 진행	중통(3/25)	외교	
2010년 3월 26일	김정일, 인민대학습당에 지난해와 올해에 총 2,300여종 4,100여부의 도서와 자료 전달	중방(3/26)	사회 문화	
금요일	安重根 열사 殉國 100주년 계기 '북남공동모임' 3/26 北 장재언(조선적십자 회장) 및 南 함세웅 등 참가 下 중국 대련에서 진행	중통(3/27)	외교	
2010년 3월 27일	조선노동당 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 속에서 85' 출판 및 공동구호 관철 선전화 '모두다 희천발전소 건설 예로' 등 창작	중방(3/27)	사회 문화	
토요일				
2010년 3월 28일	김정일,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	중방(3/28)	사회 문화	
일요일	김영남, 3/28 아프리카 가봉, 감비아, 세네갈 공식 巡訪 차 평양 출발	중통(3/28)	외교	
2010년 3월 29일	김정일, 3/29 駐北 中 신임대사 「류홍재」와 담화 및 만찬	중통(3/29)	외교	
월요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새학년도 준비 사업에서 성과	중통(3/29)	사회 문화	
2010년 3월 30일	김영남, 3/30 러시아 철도테러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	중통(3/30)	외교	
화요일	各地 사찰들에서 불기 2554년 '열반절 기념법회' 진행	중통(3/30)	사회 문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각 단위 일꾼-건설자들의 골조 공사 성과 보도	평방(3/30)	경제	
2010년 3월 31일	김영남, 3/31 가봉 대통령과 회담	중통(3/31)	외교	
수요일	'선군시대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 3/31 김영일, 전병호, 최태복, 오수용(내각 부총리, 보고), 노두철 등 참가 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통(3/31)	사회 문화	
2010년 4월 1일	김영일, 4/1 인도 글로벌 강철주식회사 대표단(프라모드 미탈 회장)과 담화	중통(4/1)	외교	
목요일	태양절 즈음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진행	중통(4/1)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北-이탈리아 합작회사 <고리탈(CORITAL, 2009년 4월 창설>, 평양시에서 식당과 상점 운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	조선신보 (4/1)	경제	
	천연물약품연구소, 영양수액 '알포진', '자룡혈전 용해교감약', '펠비나크젯제주사약' 등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중통(4/1)	경제	
	전국의 대학, 전문학교, 중·소학교들에서 새 학년도 시작	중통(4/1)	사회 문화	
	재령광산(黃南 재령군, 철광석 생산기지), 광석운반계통의 컴퓨터조종체계 완성 등 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건에서 성과	중통(4/1)	경제	
2010년 4월 2일 금요일	김영남, 4/2 감비아 대통령과 회담	중통(4/3)	외교	
	인민보건법 발표 30돌 기념 중앙보고회, 최태복(黨비서), 오수용(내각부총리, 보고) 등 참가 下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	중통(4/2)	정치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3세대이동통신'(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통신의 현 실태 반영 등) 및 '집성목재가공기술' 등 제목의 과학영화들 제작	중통(4/2)	사회 문화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 양어 및 축산용 '큰 단백질 발효먹이' 개발도입	중방(4/2)	경제	
2010년 4월 3일 토요일	김정일, 만수대예술단 공연 관람	중방(4/3)	사회 문화	
	김정일, 4/3 黨 중앙위, 국방위 주최 「류흥재」駐北 中新임대사 환영연회 참석	중통(4/3)	외교	
	김영남, 4/3 세네갈 도착 및 아프리카재생기념비 제막 행사 참가	중통(4/4)	외교	
	보건성, 신생아 98%에게 결핵예방접종 실시 등 '전국적 범위에서 환자들에 대한 결핵 치료약의 투약상태 감시 체계 운영 中' 보도	조선신보 (4/3)	사회 문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공위성 발사와 제2차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제4, 5부 제작	중통(4/3)	사회 문화	
2010년 4월 4일 일요일	김영남, 4/4 세네갈 대통령과 회담	중통(4/5)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4월 5일 월요일	스웨덴 적십자사 대표단(단장: 「오싸 몰데」부위원장), 평양 도착	중통(4/5)	외교	
2010년 4월 6일 화요일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제86권(1987.8.12~12월 까지 역사적 결론, 담화, 연설 축하문 등 34건 수록) 출판	중방(4/6)	사회 문화	
	조선우표사, 태양절 기념 우표(개별우표 4종) 새로 발행	중통(4/6)	사회 문화	
	4/6 不入北 억류 미국인 「아리잘론 말리 곰즈」에 대해 재판回附결과 “8년 노동교화刑과 7,000만원 벌금刑 언도” 보도	중통(4/7)	외교	
2010년 4월 7일 수요일	김영남, 4/7 가봉, 감비아, 세네갈 방문 後 귀국	중통(4/7)	외교	
	태양절(4.15) 즈음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4/7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김종린(당비서), 박학선(체육지도위원장, 개막연설) 등 참가 下 개막	중통(4/7)	사회 문화	
	최고인민회의 상임리 ‘정령’ 제774호, 4/7 ‘강성대국 건설에 특출한 공로 단체(2.8직동 청년탄광 등 5개 단체)와 일꾼들(유용석 등 18명)’에게 태양절 즈음 「김일성훈장」 수여	중방(4/11)	정치	
2010년 4월 8일 목요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김영춘(軍차수, 보고), 김기남(黨비서, 사회) 등 참가 下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	중방(4/8)	정치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담보하는 선군정치’ 題下 김정일의 지난 10년 간 펼친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 정당성 주장	노동신문 (4/8)	정치	
	태양절(4.15)관련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준비 마감 단계	중통(4/8)	사회 문화	
	駐北 쿠바대사, 北-쿠바 외교관계 설정 50돌 및 미국의 반쿠바 봉쇄 철회를 위한 문제 관련 自國 대사관에서 기자회견	중통(4/8)	외교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청년회관 소조원들의 미술전시회 4/8~13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	중통(4/14)	사회 문화	
2010년 4월 9일 금요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지원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김금희(경공업성 부원) 등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4/9)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2차 회의,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중통(4/9)	정치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주석단 발표: 김영남, 김영일, 김영춘, 리용무, 오극렬, 전병호, 최태복, 리영호, 리정각, 김일철, 양협섭,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김영대, 유미영 등	중방(4/9)	정치	
2010년 4월 10일 토요일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조국통일영도업적' 題下 김일성 생전 "조국통일3대헌장집대성 등 조국통일 업적" 칭송	노동신문 (4/10)	정치	
	태양절 기념 인민문화궁전에서 국가 간부들 참가 下 기록영화 '한평생 인민들 속에서 5' 상영	중통(4/10)	사회 문화	
2010년 4월 11일 일요일	태양절 기념 국제육상연맹-제23차 만경대상 마라톤경기대회, 김일성광장에서 개막	중통(4/11)	사회 문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	중통(4/11)	사회 문화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 현지지도	중통(4/12)	사회 문화	
	개건된 조선미술박물관 개관식, 안동춘(문화상/개막사) 등 참가 下 진행	중방(4/12)	사회 문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4/12~13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첫 공연과 제2일 공연 진행 등 『태양절』 기념 對內행사 동향 보도	중통(4/13)	사회 문화	
	태양절 기념 농업근로자들의 회고모임 '우리 수령님 같은 분 세상에 없습니다', 4/12 김중린(黨비서), 한경송(농근맹 부위원장) 등 참가 下 만경대혁명사전관 교양마당에서 진행	중통(4/13)	정치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제5작업반 김동네의 4/12 새집들이(80세대) 자랑	중방(4/13)	경제	
2010년 4월 13일 화요일	김정일, 태양절 즈음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종합훈련 참관시 수행	중통(4/13)	군사	
	『여맹』원들의 태양절 기념무대(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어 태양의 노래는 영원합니다), 개선문광장에서 김중린(黨비서), 노성실(여맹위원장) 등 참가 下 진행	중방(4/13)	사회 문화	
	駐北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 제12차 김일성화축전장 관람	중통(4/13)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민주공고 노동계시민협회, 김일성, 김정일에게 '노동계 최고상' 전달	중통(4/13)	외교	
	국가과학원 채굴기계연구소 과학자들, 신형 '공기기동 부선기' 완성	중통(4/13)	경제	
	러시아 대통령, 4/13 태양절 즈음 김정일에게 축전	중통(4/14)	외교	
2010년 4월 14일 수요일	김정일, 태양절 즈음 일본돈 1억 8,402만 7,390ㄴ 총련 자녀들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전달	중통(4/14)	정치	
	김영남, 4/14 새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준공식 참석	중통(4/14)	사회 문화	
	김영남, 일조우호친선대표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중방(4/14)	정치	
	태양절을 맞는 平壤은 '각계층 인민들이 만경대 고향집 방문, 제12차 김일성화 축전 등 명절 분위기로 흥성이 고 있다'고 선전	중통(4/14)	사회 문화	
	태양절 기념 축포야회, 4/14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	중통(4/15)	사회 문화	
2010년 4월 15일 목요일	김정일, 태양절 음악회 관람 및 黨 名義 「감사」 전달	중통(4/15)	사회 문화	
	黨과 국가 간부, 軍지휘성원 등과 駐北 외교단, 무관단, 국제기구대표 등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	중통(4/15)	정치	
	黨과 국가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 등 만경대 방문 및 만수대언덕 등 각지 김일성동상에 헌화	중통(4/15)	정치	
	태양절 기념 社設,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펼쳐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강성대국, 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題下 김일성 생애 "주체사상 창시, 사회주의 강국초석 등 혁명공적" 및 김정일의 "선군 혁명영도" 찬양	노동신문 (4/15)	정치	
	北정부, 中 친선참관단 및 관광부문 방문단을 위해 양 각도 국제호텔에서 연회 개최	중통(4/15)	외교	
2010년 4월 16일 금요일	김정일, 4/16 시리아 독립 64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4/16)	외교	
	김일성방송대학 제46기 개학식, 방송진행	평방(4/16)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4월 17일 토요일	김정일,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 소품공연 관람	중방(4/17)	군사	
	김정일,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중방(4/17)	경제	
	黨, 政 간부들, 은하수관현악단 등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태양절음악회 관람	중통(4/17)	사회 문화	
	北 군사논평원, “천안함 침몰사고 ‘北 관련설’은 날조”라고 주장	중통(4/17)	대남	
	‘남조선 당국의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평함’ 題下 <그랜드 바겐>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파탄시키고 북남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반평화적, 반통일적 궤변”으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표명	노동신문 (4/17)	대남	
2010년 4월 18일 일요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4/18)	군사	
	김정일,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군중예술부문 종합공연 관람	중통(4/18)	사회 문화	
	제12차 김일성화축전 개막이래 각계층 인민들 15만여명 참관 선전	중방(4/18)	사회 문화	
	2월17일과학자기술자돌격대원들, 새로운 방수액(접착력, 연식율 우수) 개발	중방(4/18)	경제	
	‘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추악한 행적’ 題下 南 現정부 집권기간 “親美동맹 강화, 對日 관계 개선 등 外來정책” 비난	평방(4/18)	대남	
2010년 4월 19일 월요일	김정일, 평양시 농촌경리위 고문 『이신자』에게 70번째 생일상 전달	중통(4/19)	사회 문화	
	‘4.19인민봉기’ 50돌 기념 평양시보고회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	중방(4/19)	사회 문화	
	체오합작회사의 3G 이동통신봉사(고려링크) 이용자 수 4월 현재 12만 명 돌파 및 단말기의 국내생산도 시작 예정	조선신보 (4/19)	경제	
	군국주의의 대를 물리려는 음흉한 책동 題下 2011년 日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獨島 일본영도 표기를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 해외침략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재침행위라고 비난	중통(4/19)	외교	
2010년 4월 20일 화요일	社設 ‘천리마 시대의 영웅들처럼 당과 조국이 기억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題下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천리마대고조시기 영웅들의 기질, 정신세계, 본태를 남김없이 보여주라”고 선동	노동신문 (4/20)	정치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국가과학원 수핵연구소, 지능화된(자동충전) 신형 ‘고속충전기’(일명 CNC 고속충전기, 전압안정단과 충전체계, 축전지 조종장치 등 구성)개발	중통(4/20)	경제	
	제12차 김일성화축전 “성대한 진행 및 첫 축전 이래 지금까지 450여만 명 참관”등 선전	중방(4/20)	사회 문화	
	기록과학영화촬영소, 기록영화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연 150일 전투, 100일 전투’ 완성	중통(4/20)	사회 문화	
	경흥관맥주집(평양 보동강 구역) 개건(2,000㎡) 조업 (4/20)관련 맥주종류, 수용규모(7가지 맥주, 3,000~4,000명 수용) 등 자랑	중통(4/23)	경제	
2010년 4월 21일 수요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김영일 총리 등 참가 下 진행	민주조선 (4/21)	정치	
	강반석(김정일 祖母)생일 118돌 관련 ‘애국의 뜻으로 한생을 빛내이신 여성혁명가’ 題下로 “조국과 민족, 항일혁명 투쟁사” 칭송	중통(4/21)	사회 문화	
	김정일 노작(보건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 25돌 기념 중앙의학과학토론회, 인민대학습당에서 리봉훈(北의학협회 위원장) 등 참가 下 진행	중통(4/21)	사회 문화	
	北 군사대표단, 쿠바 군사대표단과 회담에서 ‘兩國 군대의 친선관계 발전의지 재확인 등 호상 관심사 문제 의견 교환’	중통(4/21)	군사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쿠바 군사대표단(단장: ‘알바로 로베스 미에라’ 부상 겸 총참모장)과 담화	중통(4/21)	군사	
	라선시(특별시), 몽골 도로운수건설 및 도시경영성간 “경제무역 협조발전에 대한 양해문”조인	중통(4/21)	경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3중3대혁명붉은기’와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추 정령 발표	중방(4/21)	경제	
	의문덩어리 題下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韓美 당국자들이 진상을 왜곡하고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北 관여설 否認	조선신보 (4/21)	대남	
	조성된 사태에 대처한 정당한 권리행사, 합의위반자들의 파렴치한 수작 題下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 동결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국제규범 및 관례상으로 놓고 볼 때도 “자연효력 상실, 완전히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	평방(4/21)	대남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재산권은 누가 침해하였는가 題下 北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부동산 동결조치에 대한 南 당국의 재산권 침해 지적에 지켜야할 재산권은 우리(北)의 것이 더 크고 많다고 항변	중방(4/21)	대남	
2010년 4월 22일 목요일	김정일, 4.25(군 창건일)즈음 새롭게 개건된 「개선청년 공원」 시찰	중통(4/22)	사회 문화	
	‘농촌마을에 어린 사랑의 자옥’ 題下 5개년인민경제계획(1957~1961)의 20만호 농촌문화주택 건설, 간석지 개간 농촌문제 해결에 쌓아올린 김일성 업적 칭송	중통(4/22)	경제	
	北-이란, 2010~2012년도 문화 및 과학교류계획서 조인식 진행	중통(4/22)	외교	
	駐北 이란 대사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돌’ 즈음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중통(4/22)	외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 4/20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지원 관련 김정일에게 감사 전문	중통(4/22)	외교	
2010년 4월 23일 금요일	김정일, 4/23 軍 지휘성원들에게 승진 명령 제0046호 하달	중통(4/23)	군사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의 궤변 題下 統一部 長官의 금강산 南 동결 관련 對北 발언(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방적 조치)에 “보수패당이 계속 오만불손하게 날뛰면 더 중대조치 취할 것”이라고 경고	민주조선 (4/23)	대남	
2010년 4월 24일 토요일	김정일, 軍 창건 78돌 즈음 조선인민군 제115군부대 군인들의 훈련 참관	중통(4/24)	군사	
	인민무력부, 박재경(인민무력부 부부장)등 참가 下 駐北 무관단 위해 연회 마련	중통(4/24)	군사	
2010년 4월 25일 일요일	김정일, 軍 창건 78돌 즈음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 방문	중통(4/25)	군사	
	김정일, 軍 창건 78돌 즈음 공훈국가합창단의 건국절 경축음악회 관람	중통(4/25)	사회 문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1호, 4/24 조선인민군 성악배우 ‘림창실에게 인민배우 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발표	중방(4/26)	사회 문화	
2010년 4월 26일 월요일	김정일, 4/26 하이용철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4/26)	사회 문화	
	김정일, 국립연극단에서 새로 창조한 경희극 ‘산울림’관람	중통(4/26)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北정부, 訪北 세계보건기구(WHO) 총국장 일행 및 우간다 정부대표단 위한 연회 각각 개최	중통(4/26)	외교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해사감독국, 연안과 대양에서의 해상 및 항해안전, 해상환경보호에 대처하는 '배감시 조정센터' 새로 설립 국가과학원, 새 형의 '공기정화소독기' 개발 및 평양의 학대학병원, 평양 제1, 2인민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의 수술실 등에 도입 중	중통(4/27)	군사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김정일, 4/28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공연 관람	중통(4/28)	사회 문화	
2010년 4월 29일 목요일	김정일, 4/29 故김중린(黨 비서)빈소에 화환 전달 김영남(단장) 등 北 대표단,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개막행사 참가차 특별기로 중국 향발	중통(4/29)	사회 문화	
2010년 4월 30일 금요일	김정일, 4/30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전체 종업원들에게 '선물' 전달 김영남, 4/30 중국 상해에서 「후진타오」주석 및 팔레스타인 국가 수반과 담화 교화중인 美國 공민(아이잘론 말리 곰즈)에게 가족들과의 전화연계 허용	중방(5/1) 중통(4/30) 중통(4/30)	사회 문화 외교 외교	
2010년 5월 1일 토요일	김정일, 5/1 러-北 예술인의 5.1절 합동음악회 관람 「5.1절」 12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김영일(내각총리, 보고), 노두철(내각부총리), 김병팔(직총 위원장), 조병주(기계공업상) 등 참가 下 락원기계연합기업소에서 진행	중통(5/1) 중통(5/1)	외교 사회 문화	
2010년 5월 2일 일요일	평양시내 근로자들의 체육, 유희 진행 등 전국 각지 근로자들의 5.1절 기념행사 진행	중방(5/2)	사회 문화	
2010년 5월 3일 월요일	김정일, 中 「후진타오」주석 초청으로 5/3~5/7 중국 비공식 방문 강석주, 김기남, 김양건, 김영일, 김영춘, 이명수, 장성택, 주규창, 최태복, 태종수, 현철애, 김정일 중국 비공식 방문시(5/3~5/7) 수행 김정일, 이집트 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라바크' 생일 82돌 관련 5/3 축전 발송	중통(5/7) 중통(5/7) 중통(5/3)	외교 외교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최근 발굴된 70여점의 유물들과 250여건의 사진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역사유적 유물전시회 진행	중통(5/3)	사회 문화	
	양형섭,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파키스탄 준비췌 대표 단과 담화	중통(5/3)	외교	
	‘평화의 절박성 부각시킨 보복론’ 題下 南 정부와 여당이 「천안함」 침몰 관련 “北관련설 여론몰이 등 대결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평화협정 회담을 제의한 수뇌부의 의향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北을 代辯	조선신보 (5/3)	대남	
2010년 5월 4일 화요일	제10차 5/21건축축전(5/4~5/7)개막식, 인민문화궁전에서 배달준(국가건설감독상/개막사) 및 중앙과 지방의 건축, 건설, 건재부문 일꾼 등 참가 下 진행	평방(5/4)	사회 문화	
	러시아 정부, 김정일에게 ‘조국전쟁승리(8.15광복) 65돌’ 기념메달 수여식 駐北 러 대사관에서 진행	중통(5/4)	외교	
2010년 5월 5일 수요일	고고학자들, 黃北 승호군 리천리 일대에서 신석기시대 질그릇 가마터 발굴	중통(5/5)	사회 문화	
	기자동맹대표단(단장: 이혁성 부위원장), 中國 방문차 기차편으로 평양 출발	중방(5/5)	외교	
2010년 5월 6일 목요일	인민무력부, 박재경(인민무력부 부부장)등 참가 下 중 국인민지원군 열사가족대표단을 위해 연회 개최	중통(5/6)	외교	
	김영남,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망 관련 5/6 위문전문 발송	중통(5/7)	외교	
2010년 5월 7일 금요일	김정일, 5/7 中 「후진타오」 주석에게 訪中 환대 등 謝意 표명 전문 발송	중통(5/7)	외교	
2010년 5월 8일 토요일	김정일, 경희극 ‘산울림’ 再관람	중통(5/8)	사회 문화	
	‘세계 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5/8)’즈음 자연재해와 전염병 예방, 안전한 食水 보장을 위한 사업 적극 추진	중통(5/8)	사회 문화	
2010년 5월 9일 일요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등 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오영」 등에게 ‘감사’ 전달	평방(5/9)	사회 문화	
	김영남, 5/9 러시아대통령에게 同國 전쟁승리 65돌 축전 발송	중통(5/9)	외교	
	社設, ‘조중친선의 역사에 길이 빛날 획기적 사변’ 題下 김정일의 이번 訪中과 관련 ‘兩國친선은 굳건하며 불패’라고 “성과와 업적”칭송	노동신문 (5/9)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5월 10일 월요일	각지 농촌들, 버모판 관리와 모내기 준비사업 활발히 진행	중통(5/10)	경제	
2010년 5월 11일 화요일	김정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5/11)	사회 문화	
	社設, ‘모든 힘을 모내기에 총집중, 총동원하자’ 題下 “모내기는 한 해 농사에서 중요한 영농공정”이라며 畝民 제철 모내기 완료 독려	노동신문 (5/11)	경제	
	중앙동물원, 아프리카 사자 1쌍 등 6종, 22마리 동물들 합류	중통(5/11)	사회 문화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교조 명단 놀음’ 題下 한나라당의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를 “진보적 단체들을 와해, 말살하기 위한 모략 책동”으로 비난하며 ‘6/2 地自製 선거를 통한 실용정부 심판’ 선동	중방(5/11)	대남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자체 기술로 “핵융합반응 성공”주장	노동신문 (5/12)	군사	
2010년 5월 13일 목요일	김정일, 상서청년광산 등 “援軍美風”을 발휘한 일꾼-종업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5/13)	사회 문화	
	김영남, 5/13 캄보디아 국왕에게 생일 57돌 관련 축전 발송	중통(5/13)	외교	
	北, 5/13 김일철을 해임할 데 대한 「국방위원회 결정 제 06호」 발표	중통(5/14)	정치	
2010년 5월 14일 금요일	김영남, 나이지리아 대통령 新任 대통령 「군락크 에펠레 조나단」에게 축전	중방(5/15)	외교	
	평양 대동강 한복판에 “춤추는 분수” 새로 설치 자랑	중통(5/14)	사회 문화	
	‘합법적이며 정정당당한 권리행사’ 題下 제8차 NPT 이행 검토대회(5/3~, 유엔)진행과 관련 ‘北 NPT 탈퇴 및 핵보유는 美 등의 자주권 침해 행위에 대처한 합법적이며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주장	중통(5/14)	외교	
2010년 5월 15일 토요일	‘미래의 새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핵융합기술’ 題下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산의 長點을 소개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력 속에서 핵융합 반응을 우리식의 독특한 방법으로 성공시킨 것은 자랑할 성과”라고 再次강조	노동신문 (5/15)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北 외무성 대변인, 5/15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北을 시리아, 이란과 함께 새로운 '악의축'으로 지목한 것 관련 중 통기자 질의 대답을 통해 비난하며 "北은 그 어떤 대량 살육무기 전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	중통(5/15)	외교	
2010년 5월 16일 일요일	김정일, 양강도 백두산선군 청년발전소 건설장 현지 지도	중통(5/16)	경제	
2010년 5월 17일 월요일	희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5/17)	사회 문화	
	김정일, 양강도 백암군 덕포지구에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감자농장과 삼지연군 여러부문 사업 현지도	중통(5/17)	경제	
	南 '광주인민봉기' 3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5/17, 중앙 노동사회관에서 '보수패당은 금강산관광 사업을 끝끝내 파탄시켰으며, 괴뢰군 함선 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대결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反美, 反戰 투쟁, 친미파소독제 부활책동 저지 투쟁' 등을 선동	중방(5/17)	대남	
	제13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 3대혁명전 시관에서 참가 下 진행 및 고려호텔에서 연회개최	중통(5/17)	사회 문화	
	<정일봉상>전국 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청춘거리 농구 경기관에서 리용철(청년동맹 중앙총1비서, 개막연설) 등 참가 下 진행	중통(5/17)	사회 문화	
	경희극 '산울림' 공연은 '오늘의 대고조 시대에 새로운 대비약의 메아리로, 더 높은 창조와 좌표를 세워주고 있다'고 공연 성과 선전	중통(5/17)	사회 문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5/17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 6월7일 평양소집「결정」발표	중통(5/18)	정치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김정일, 양강도 해산시 여러 부문 사업(해산 강철공장, 김정숙사범대학 등) 현지도	중통(5/18)	경제	
	전국상업부문일꾼회의, 5/18 김영일(내각총리), 박명선(내각부총리) 등 참가 下 평양서 진행	중방(5/19)	경제	
	駐北 中대사 유홍재, 5/18 김정일 訪中 성과 관련 친선 모임 진행	중방(5/19)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5월 19일 수요일	김정일, 대흥단군(백산돼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대흥단읍 등) 현지지도	중통(5/19)	경제	
2010년 5월 20일 목요일	김정일, 함경북도 관모봉기계공장 현지지도	중통(5/20)	경제	
	김정일, 함경북도 어랑천발전소건설장, 청진토끼종축장 현지지도	중통(5/20)	경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4배 이상의 과수면적 새로 조성 조선미술박물관, 시대적 미감에 맞게 개건되었다고 보도	중통(5/20) 중통(5/20)	경제 사회 문화	
2010년 5월 21일 금요일	김정일, 함흥화학공업대학 현지지도	중통(5/21)	사회 문화	
	김정일, 노재선(선봉농업대학 교원)과 이영수(함흥화학공업대학 연구사)에게 「생일상」 전달	중방(5/21)	사회 문화	
	「부처님 오신날 봉축 남북 불교도 동시법회」, 北 각지 사찰들에서 진행	중통(5/21)	사회 문화	
	北 지하철도 건설 박물관 창립(1980.5.21) 30돌 기념 보고회, 5/21 리병삼(조선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김정수(관장, 보고) 등 관계부문 일꾼들 참가 下 진행	중방(5/22)	사회 문화	
	北 조평통 대변인, 5/21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관련 現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남측의 대응, 보복으로 나올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 철폐 대응” 성명 발표	중통(5/21)	대남	
北외무성 대변인,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미국이 우리(北)를 걸고 든 것”은 北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적대시 정책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北)는 천안함 침몰사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미국의 주장은 賊反荷杖”이라고 강변	중통(5/21)	외교		
2010년 5월 22일 토요일	「국제생물다양성의 날(5/22)」, 北은 “지구적 범위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김순일(北자연보호연맹 서기장) 주장	중통(5/22)	사회 문화	
2010년 5월 23일 일요일	김정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건설을 위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5/23)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궤기모임 오수영(내각부 총리), 김희택(양강도 당책) 등 참가 下 진행	중방(5/23)	사회 문화	
	‘도발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題下 南 당국이 “천안함침몰사건”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을 위한 목적에 악용하며 미, 일 상전과 공모 결탁하여 핵전쟁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북관계 전면 폐쇄’ 등 조평통 대변인 성명(5/21)想起	노동신문 (5/23)	대남	
2010년 5월 24일	김영남, 인도 여객기 사고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	중통(5/24)	외교	
월요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평양인형극단의 <요술에 걸린 곰> 공연진행	중통(5/24)	사회 문화	
	北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 관련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날조극, 모략극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한 서투른 연극”으로 비난하며 北 검열단의 무조건 수용 再次 요구	중통(5/24)	대남	
2010년 5월 25일	‘호지명 생일 120돌 기념 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대동문 영화관에서 김정숙(대외문화연락 위원장), 전영진(대외문화연락총 부위원장) 등 참가 下 진행	중통(5/25)	정치	
화요일	경희극 ‘산울림’ 5/25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공연 진행	중통(5/27)	사회 문화	
2010년 5월 26일	조선노동당-라오스 인민혁명대표단, 5/26 평양에서 회담 개최	중통(5/26)	외교	
수요일	군인건설자들,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주력	평방(5/26)	경제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천안호 사건으로 최대의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題下천안함 군사도발사태 관련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미국과 아태지역 동맹국들”이라며 “미국이 南당국을 내세워 꾸민 아시아판 9.11사건”이라고 주장	중통(5/26)	대남	
2010년 5월 27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5/27)	사회 문화	
목요일	최근 평양 대동강 맥주공장(평양시에 150여개)의 발효 탱크 등 설비증설(현대화공사)로 생산능력 2배 성장, 맛과 특이한 향으로 근로자들의 청량음료로 호평	중통(5/27)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어량천발전소 건설자들과 청진토끼종축장 종업원들, 5/27~5/28 홍석형(成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 下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각각 진행	중방(5/29)	사회 문화	
2010년 5월 28일 금요일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독일 사회민주당출신 연방 의회 의원일행과 담화	중통(5/28)	외교	
2010년 5월 29일 토요일	『조국전선』 중앙쫘, 5/29 南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이번 6.2 지방선거는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고 주장하며 ‘선거를 통한 現정권 심판’ 선동	중통(5/29)	대남	
2010년 5월 30일 일요일	北, 천안함 조사발표 관련 美-韓 “反北대결 규탄”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10만명 운집) 개최	중방(5/30)	대남	
2010년 5월 31일 월요일	黨, 政 간부들, 리보익(김일성 曾祖母)출생 134돌 즈음 墓에 화환 헌화	중통(5/31)	사회 문화	
	‘세계금연의 날’ 즈음 인민문화궁전에서 행사 진행	중통(5/31)	사회 문화	
	北 여자축구 대표팀, 2010년 아시아컵 여자축구경기 2위 소식 보도	중방(5/31)	사회 문화	
2010년 6월 1일 화요일	김정일, 6/1 故이정부(포병사령부 사령관)의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6/2)	사회 문화	
	김정일이 평안북도에 불도저를 보내준 것에 대한 『군민연환대회』, 5/31 신의주에서 진행	중방(6/1)	사회 문화	
	김정일의 중국비공식방문(5/5~5/7)기념우표(소형전지1종, 묶음전지3종) 및 국제아동절 60돌(소형전지1종)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경기대회(소형전지1종, 묶음전지1종) 기념우표 각각 발행	중통(6/1)	사회 문화	
	국제축구연맹심판원 강습, 6/1~6/6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	중통(6/7)	사회 문화	
2010년 6월 2일 수요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6/2)	군사	
	김정일, 6/2 쿠바 내각 수상 ‘라울 가스뜨로 루쓰’ 생일 관련 축전	중통(6/2)	외교	
	이제강(80세, 黨제1부부장), 교통사고사망(0시45분) 訃告(黨중앙쫘, 최고인민회의 상임쫘 名義)발표	평방(6/2)	정치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가소로운 추태’ 題下 “일본이 무턱대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편승하여 맞장구”를 치는 것은 “조선반도 유사시 조선 재침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비난	중통(6/2)	외교	
2010년 6월 3일 목요일	김정일, 평안북도에 위치한 오문현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	중통(6/3)	경제	
	김정일, 故이제강(80세, 黨 제1부부장)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6/3)	정치	
	황해남·북도, 강원도·남포시, 韓美의 반북대결 규탄 道 군중대회 개최	중통(6/3)	대남	
	日, ‘하토야마’총리 사임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 미국에 굴복(후테마 미군기지 관련 美 요구 수용)한 그에게 일본 인민과 역사가 내린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	중통(6/3)	외교	
2010년 6월 4일 금요일	김영남, 6/4 국제김일성기금 이사장(조니 혼)과 담화 및 평양 출발	평방(6/4)	외교	
	『제49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	중방(6/4)	사회 문화	
	모란봉 탄산과일물 합영회사에서 <비로봉>상표의 다기능초항산화음료(30여종의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60여종 미량원소 함유) 신제품 개발	중통(6/4)	경제	
	6.2 지방선거 결과는 “자주, 민주, 통일세력의 승리이며 민심의 단호한 심판”이라고 주장	평방(6/4)	대남	
2010년 6월 5일 토요일	김정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된 가스화 공정 현지지도	중통(6/5)	경제	
	김정일,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6/5)	사회 문화	
	北, 해군절(6.5)을 맞으며 김정일이 “나라의 특성에 맞게 해군무력강화를 위해 심혈을 다바쳤다”며 그의 “천재적이고 비범한 영도가 있어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술 수 있는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났다”고 선전	중방(6/5)	군사	
	北, 김형직 사망 84돌 즈음 동상과 묘에 화환 진정	평방(6/5)	사회 문화	
2010년 6월 6일 일요일	김정일,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현지지도	중통(6/6)	경제	
	‘조선소년단’ 창립(1946.6.6) 64돌 즈음 주체적 소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김부자 업적 선전	중통(6/6)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6월 7일 월요일	김정일, 6/7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3차회의 참석	중통(6/7)	정치	
	평양 국제보험토론회,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개막	중통(6/7)	경제	
	체육부문 인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각 道에 체육대학 설립	조선신보 (6/7)	사회 문화	
2010년 6월 8일 화요일	국방총 부위원장 장성택 등 선거 결과 및 약력 소개	중통(6/8)	정치	
	쿠바 및 인도네시아 대사관 성원들, 평양시 용성구역과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친선 노동	중통(6/8)	외교	
	한나라당의 봉은사 주지 외압설 관련,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진보세력은 물론 종교계까지 탄압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평방(6/8)	대남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천안함 사태 관련 최근 대통령 언급(정체성 확립 및 새 세대 교육 필요성)을 시비하며 이번 “특대형 반북 모략 사건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持續 협박	중통(6/9)	대남	
2010년 6월 10일 목요일	김영남, 6/10 리비아에서 미군 사기지 철폐 40돌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6/10)	외교	
2010년 6월 11일 금요일	김영남, 필리핀 독립112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6/11)	외교	
	北, 2010년 월드컵경기 개막(6/11, 남아프리카) 소식 보도	평방(6/12)	사회 문화	
2010년 6월 12일 토요일	김영남, 6/12 러시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6/12)	외교	
2010년 6월 13일 일요일	김정일, 자강도 강계시 독산동 100살 장수자 「김덕순」에게 생일상 전달	중통(6/13)	사회 문화	
2010년 6월 14일 월요일	김정일,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에 참가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	중통(6/14)	사회 문화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상봉’ 인민문화궁전에서 상영	중통(6/14)	사회 문화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 보고), 南 한상렬 목사 등 참가 下 진행	중방(6/14)	대남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농업과학원 과학자들, 농업용 살균제 개발 및 농작물 도입 결과 “88.1%~94.6% 살균효과 입증” 선전	중방(6/15)	경제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2010년 남아공월드컵” 조별연맹전 북한:브라질 경기, 새벽에 진행 소식 보도	중통(6/16)	사회 문화	
2010년 6월 17일 목요일	고고학자들의 신석기시대 줄산무늬 그릇(아구리 직경 28cm×몸체직경18.8cm×높이 30cm)발굴	중통(6/17)	사회 문화	
	전국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우렁이를 이용한 유기농법 도입 보도	중통(6/17)	경제	
2010년 6월 18일 금요일	김정일, 낙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및 새로 건설된 축구경기장(平北)시찰	중통(6/18)	사회 문화	
	김정일의 黨사업시작(1964.6.19) 46돌 관련 중앙보고대회, 6/18 최태복(黨비서, 보고), 김기남(黨비서, 사회) 등 참가 下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중방(6/18)	정치	
2010년 6월 19일 토요일	김정일, 락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6/19)	경제	
	김정일, 새로 건설된 축구경기장(平北)시찰	중통(6/19)	사회 문화	
2010년 6월 20일 일요일	김정일, 제593군부대 지휘관 강습소 시찰	중방(6/20)	군사	
	김정일, 평안북도 여러 부문 사업(12.5청년광산,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북중전극공장, 용천군 장산협동농장 등) 현지지도	중방(6/20)	경제	
	고산 과수농장의 현대화를 위한 1단계 토지정리 완성 및 함주군 동봉리에 59동의 농촌문화주택 건설	중방(6/20)	경제	
	부산지방경찰청의 6.15부산본부 수사관련 “6.15선언에 대한 또 하나의 악랄한 도전, 파쇼적 탄압공세”라고 비난	평방(6/20)	대남	
2010년 6월 21일 월요일	육류관에 요리전문식당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	중방(6/21)	경제	
	北-이란, 친선주간개막집회 전영진(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등 참가 下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	중통(6/21)	외교	
	北, 용성기계연합기업소(대기계제작기지), 모든 공정이 첨단설비와 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인 주물생산기지가 완성됐다고 보도	중통(6/21)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北외무성 대변인, '월드컵 무단 중계' 논란 관련 중통기자 질의답변을 통해 미국이 비방 중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를 회피하려는 현 행정부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화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北) 역시 촉구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	중통(6/21)	외교	
2010년 6월 22일 화요일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즈음 청년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복수 결의 모임,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와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진행	중통(6/22)	외교	
	7-8월 장마철 대비 탄광들의 배수펌프 등 설치, 화력발전소의 석탄유실 방지 등 안전대책과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자재보관 관리 등 장마철 생산준비 및 안전대책 추진	중통(6/22)	사회 문화	
	자동차 배기가스 제거 조연제 개발, 도입으로 대기오염 35~40%방지와 평양시내 환경오염대상 선정 및 방지를 위한 방법과 절차 확정 등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연구사업 적극 추진	중통(6/22)	사회 문화	
	KBS 방송 인용, 南정부의 10월 부산항과 주변해역에서 北을 대상으로 한 PSI 훈련계획 비난	중방(6/22)	대남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北, 訪北 한상렬 목사 환영 군중집회(6/23, 청년중앙회관) 진행	중방(6/23)	대남	
	北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 6/23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9월 상순에 소집할 데 대하여" 발표	중통(6/26)	정치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김정일, 평안남도 평원군 '강정화'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	중통(6/24)	사회 문화	
	北, 교화중인 미국인(아이잘론 말리 곰즈)에게 전시법 적용, 추가조치 검토	중통(6/24)	외교	
	北, 온 나라가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쟁', '사상·문화적 침투 배격', '사회주의와 운명을 같이 할 자력갱생 대고조 폭풍을 일으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선전	노동신문 (6/24)	정치	
	미제가 "1945.9.8부터 60년간 北에 입힌 모든 인적, 물적 피해액은 64조 9,598억 5,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끝까지 계산하고 피의 대가를 받아낼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	중통(6/24)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김정일, 백두산지구 건설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6/25)	사회 문화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反美군민대회, 김기남(黨비서, 연설), 장인수(평양시 黨 비서, 사회) 등 12만 여명 참가 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중통(6/25)	정치	
2010년 6월 26일 토요일	北, 함경남도 금야군에 금야강2호발전소 건설 추진 中 보도	중방(6/27)	경제	
	통일부장관의 대북전단지 살포 관련 발언(특별히 자제 요청할 계획 없다,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는 다르다)에 대해 “내놓고 지지할 계획을 드러냈다”고 비판	평방(6/26)	대남	
	한국戰은 미국이 조선 반도를 지배하고 “北을 노예화하기 위해 南을 사육하여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며 再次 ‘북침설’ 주장	노동신문 (6/26)	외교	
2010년 6월 27일 일요일	한국戰은 철두철미 미국이 사전에 준비하여 극비에 붙인 전쟁계획에 따라 감행된 부정의의 전쟁, 침략전쟁이라고 지속적 비난	중통(6/27)	외교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北, 관문점 대표부, 6/28 韓·美가 “관문점 회의장 남측지역에 각종 중무기들을 끌어들이는 위반행위를 감행했다”며 인민군 측의 원칙적 입장 통지	중통(6/28)	대남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정○○국무총리의 「민주평통」자문위원 만찬시 對北발언(단호한 대처, 자위권 발동)을 “사건을 은폐하고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호전적 망발, 대결미치광이의 황당한 궤변”이라며 “전쟁도발책동에 대해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평방(6/29)	대남	
	아프가니스탄 再파병 계획 관련 “미제의 침략전쟁에 대해 사병들을 대포밥으로 섞겨 바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친미사대 매국노들을 역사의 심판장에 끌어내 단호히 징벌할 것”을 주장	중통(6/29)	대남	
	北, 월드컵 축구선수들 6/29 귀환 소식 간략 보도	중방(6/29)	사회 문화	
2010년 6월 30일 수요일	김○○국방부장관(실효성, 비례성에 의거해 대응)과 김○○해군참모총장(적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 발언 및 美 제7함대 사령관과 의견조율, 심리전 재개 준비 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섬멸적인 불 소나기로 반역패당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 무덤길을 재촉하는 가소로운 망발” 豪言	평방(6/30)	대남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

##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통일정세분석 2010-04

---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화 : 901-2525, 팩스 : 901-2544
인쇄처	(주)늘품플러스 전화 : 070-7090-1177
인쇄일	2010년 8월
발행일	2010년 8월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